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한국인의 종교와 정치 참여 :
결사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용민

한국인의 종교와 정치 참여 :
결사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석호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용민

김용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 월

위 원 장 송 호 근 (인)

부 위 원 장 김 홍 중 (인)

위 원 김 석 호 (인)

한국인의 종교와 정치 참여 : 결사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용민

국문 초록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 연구는 종교와 정치 참여 간 관계를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자발적 결사체는 참여자들에게 신뢰와 시민성을 증진시켜 정치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인한 참여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서구의 정치사회학자들은 종교가 결사체 참여 등 사회자본의 보고임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서도 결사체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의 결사체 참여가 정치 참여에 갖는 의미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종교 단체와 시민 사회를 연결시킴으로써, 종교가 한국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종교가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 다음 자발적 결사체 유형을 잠재 집단 분석(LCA)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통해 종교 중심형 유형을 발견하고, 이 유형이 세 가지 정치 참여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 때 투표

참여, 정치 행동 참여, 일상적 정치 참여의 유형 분류의 타당성은 다차원 척도 분석(MDS)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에서도 종교는 결사체 참여 및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참여를 증진시킨다. 종교 의례 참여는 결사체 참여의 종류수를 증가시키고, 종교 단체 참여와 종교 의례 참여는 (비선거적) 정치 참여의 종류수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결사체를 각각 따로 분석할 경우 종교 의례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종교단체와 봉사단체 뿐이었다. 결사체 참여 종류수의 증가도 상당부분 이 두 종류의 결사체 참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참여하는 결사체 종류수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결사체 참여 유형을 분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종교 유형 간의 차이는 종교 의례나 종교 단체를 함께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로, 결사체 참여 유형의 잠재 집단 분석 (LCA) 결과 종교 단체 참여자 상당수가 특정 유형으로 묶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우선 다양한 결사체에 참여하면서 종교 단체 참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유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교 중심 포괄형으로 이름을 붙였다. 나머지 유형은 고립형, 사적 결사체 중심형으로 명명된다. 종교 중심 포괄형은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산층이다.

셋째로, 정치 참여 유형의 경우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분류했다. 그 세 가지는 투표 참여, 정치 행동 참여, 일상적 정치 참여다. 만약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정치 참여를 합치지 않고 정치참여 행위 각각을 따로 분석할 경우, 상당수의 정치 참여 변수에서 결사체 참여 유형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로, 결사체 참여 유형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고립형을 기준으로 할 때 종교 중심 포괄형이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정치 참여는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 두 가지였다. 반면 투표 참여에서는 고립형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에서, 종교 중심 포괄형의 예측 확률은 고립형은 물론 사적 결사 중심형에 비해서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결사체 유형과 정치 참여 유형 간 관계에서 종교의 유형(불교, 개신교, 천주교)은 영향력이 미미했다. 즉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치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종교 유형 별 참여 메커니즘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자료의 한계로 종교인의 결사체 참여, 정치 참여가 갖는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종교 단체 참여와 활동이 양적인 측면에서 정치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가 참여 민주주의에 미치는 질적인 의미는 종교 중심 포괄형 유형에 속한 시민들의 시민성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발적 결사체, 정치 참여, 종교, 종교 단체, 잠재 집단 분석
(LCA, Latent Class Analysis)**

학번 : 2016- 20175

목차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	5
2-1. 사회학에서의 종교 : 종교의 공동체적 차원	5
2-2. 종교와 정치 참여 : 경험 연구의 흐름	7
2-3. 정치 참여의 요인과 유형	10
2-4. 자발적 결사체와 참여 민주주의	14
2-5. 종교와 정치 참여: 한국인의 결사체 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16
2-6. 연구 문제	19
3. 연구 방법	20
3-1. 연구 자료	20
3-2. 변수의 조작화	20
4. 분석 결과	29
4-1. 종교와 결사체 참여	29
4-2. 종교와 정치 참여	33
4-3. 참여 유형 분류	37
4-3-1. 결사체 참여 유형	37
4-3-2. 정치 참여 유형	42
4-4.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	46
4-4-1. 투표 참여	46
4-4-2. 정치 행동 참여	49
4-4-3. 일상적 정치 참여	52
5. 결론	55
참고문헌	59

표 목차

<표1> 기초통계 :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26
<표2> 종교와 결사체 참여	31
<표3> 종교와 비선거적 정치 참여	35
<표4> 잠재 집단 분석(LCA) 모델의 적합성 평가	37
<표5> 결사체 참여 잠재 집단 유형	38
<표6> 결사체 참여 유형 별 특성	40
<표7> 결사체 참여 유형과 투표 참여	46
<표8> 투표 참여 예측 확률	48
<표9> 결사체 참여 유형과 정치 행동 참여	49
<표10> 정치 행동 참여 예측 확률	51
<표11> 결사체 참여 유형과 일상적 정치 참여	52
<표12> 일상적 정치 참여 예측 확률	54

그림 목차

<그림1> 정치 참여 비율 (1)	22
<그림2> 정치 참여 비율 (2)	23
<그림3> 자발적 결사체 참여 비율	24
<그림4> 결사체 참여 종류수	30
<그림5> 의례 참여와 종류 별 결사체 참여 Coef. Plots	33
<그림6> 비선거적 정치 참여 종류수	34
<그림7> 결사체 참여 유형 (결사체 별 참여 비율)	38
<그림8> 정치 참여의 다차원 척도 분석 (MDS)	43
<그림9> 결사체 유형과 정치 참여 전체 Coef. Plots	44
<그림10> 결사체 유형과 정치 참여 유형 Coef. Plots	45
<그림11> 투표 참여 예측 확률	48
<그림12> 정치 행동 참여 예측 확률	51
<그림13> 일상적 정치 참여 예측 확률	54

1. 서론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송호근, 2017; 진보미, 2017)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경험한 ‘주권적 우울’(김홍중, 2016)은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광장의 에너지로 변했다. 결국 시민들은 전국적인 대규모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촛불 집회가 수개월 이어진 광화문 광장에는 각종 종교 단체 깃발을 들고 참여한 종교 신자들이 있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와 천도교까지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박근혜 퇴진 5대 종단 운동본부’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른바 맞불 성격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도 십자가를 비롯한 종교적 상징들이 등장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친정부와 반정부, 진보와 보수가 혼재된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종교의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같은 종교 내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표출된다.

한국에서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부각되었다.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종교계가 운동을 조직하고 자원을 공급하며 활동가를 길러내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았기 때문이다. 학생 운동, 노동 운동 등 다른 부문 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종교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정치에서 종교는 중요한 행위자로 여겨져 왔다. 유력 정치인이 앞 다투어 종교계를 예방하고, 종교 단체는 신도를 동원해 정치에 참여한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혹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한다.

그런데 단순히 종교 단체의 조직 동원만으로는 종교의 정치 참여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종교 단체가 소속 신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정치적 행동에 나설 때,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개신교계의 조직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계열

정당이 원내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과거의 불교, 통일교 정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명박 정권 시기에 개신교 편향 논란 등이 있었으나, 종교 단체의 동원력은 언론에서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종교 지도자나 특정 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주로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종교가 개인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한다. 이와 같은 경험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개인 단위의 정치 참여에서 종교 유형, 종교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Harris, 1994; Layman, 1997; Cassel, 1999; Jones-Correa & Leal, 2001; Lewis et al, 2013) 종교는 개인 차원의 참여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신도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기도 한다. 정치학계에서 경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변방으로 밀려났던 종교가 (Wald & Wilcox, 2006), 최근 들어 다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자본론으로, 종교 단체가 자발적 결사체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Putnam, 2000; Wuthnow, 2002; Cornwell, 2004) 자발적 결사체는 정치 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려 왔다. 하지만 미국의 경험 연구에서도 종교 단체와 타 결사체 참여 간의 관계가 정치 참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각되지 못했다. 종교인들이 다양한 결사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인데, 이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인 중에서도 결사체 참여 양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종교 단체에만 참여할 수도 있고, 연고 집단 등의 사적 결사체 혹은 시민 단체 등 공적 결사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는 경험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성 높은 서베이 자료들이 구축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한 경험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사회학, 정치학 정치 참여 경험 연구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연결망, 자발적 결사체, 정치 참여 유형론, 정치 효능감과 신

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사회처럼 개인의 삶에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경험 연구 시 종교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도 핵심적인 설명 변수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본 연구는 종교와 정치 참여 간 관계에서 자발적 결사체 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단순히 종교 단체 참여 혹은 의례 참여가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사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잠재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이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다. 특히 종교 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정치 참여 유형에 따라 결사체 참여 유형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치 참여 역시 투표 참여, 정치 행동 참여, 일상적 정치 참여로 나누어 분석한다. 세 가지 분류의 타당성은 다차원 척도 분석(MDS)으로 검증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참여자에게 신뢰와 시민성을 증진시키고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Kim, 2011, 2016).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활발한 결사체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용이해진다. 그런데 자발적 결사체가 신뢰와 시민성을 창출하는 능력은 사회에 따라 다르며 (Kim, 2011) 이에 따라 정치 참여 불평등 완화의 효과도 다르다. (Kim, 2016) 참여 민주주의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토크빌 이래로 자발적 결사체에 주목한 사회자본론자들은 종교인들의 활발한 결사체 활동을 강조해 왔다. (Tocqueville, 2003[1835]; Putnam, 2000; Skocpol, 2003; Putnam & Campbell, 2010) 종교 단체 활동은 신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길러주고 다른 결사체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종교 단체는 미국의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Cornwell, 2004)

종교 단체는 다른 자발적 결사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인의 종교 단체 참여는 다른 종류의 결사체 참여와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나며 관계 맺기 전략도 다르다. (임자은·김석호, 2018)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연고집단, 여가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전략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 단체는 인식적, 감정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결사체보다 더 강력하게 정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Harris, 1994) 종교 단체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타주의나 사랑을 가르칠 뿐 아니라 신, 사후 세계 등 종교적 인식 틀을 통해 참여를 촉진한다. (Lewis et al., 2013) 단순히 결속력만 높은 조직이 아니라, 참여의 내적 동기를 제공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결사체 참여 유형 분류에서 종교 중심 유형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치 참여 확률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결사체에 폭 넓게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는, 종교계 내부와 바깥의 시민 사회를 연결한다. 물론 이러한 연결은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와 관용, 권리 의식 등 시민성 역량에 따라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촉매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종교적 가치관을 외부로 표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참여의 질을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종교 중심 결사체 참여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양적 효과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종교 중심 결사체 참여 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는지 여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종교와 정치 참여 간 관계에서 자발적 결사체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2016년 KGSS 자료의 특성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 1,2절에서

는 먼저 종교가 자발적 결사체 참여, 정치 참여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3절에서는 결사체 참여 유형을 잠재 집단 분석(LCA)으로 분류하고, 정치 참여 유형을 다차원 척도 분석(MDS)로 검증한다. 그리고 4절에서 결사체 참여 유형과 정치 참여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서술한다.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학에서의 종교 : 종교의 공동체적 차원

사회학은 초창기부터 종교와 사회 간 관계에 관심을 가져 왔다. 종교 사회학은 종교에 대한 ‘경험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문(종교 심리학, 종교 현상학, 종교 인류학)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공동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김종서, 2005) 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신앙 본질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가 사회와 맺는 상호 관계에 있다. 고전 사회학자 중 베버의 경우 종교가 사회 변동과 맺는 관계에, 뒤르케임의 경우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Weber, 2002[1905]; Durkheim, 1995[1912]; 이원규, 2015)

종교와 사회 간의 불가분적 관계는 세속화론의 도전을 받게 된다. (Wilson, 1966; Berger, 1967) 세속화론은 종교의 쇠퇴 내지 변형을 주장하였으나 (김재명, 2009; 김종서, 2005; 이원규, 2015) 유럽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 각 지역의 종교적 성장과 부흥,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 탈세속화, 탈사사화, 재정치화 등이 논의되었다. (Casanova, 1994; Berger, 1999; 강인철, 2013) 한국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다. 20세기 중후반 진행된 한국 개신교의 성장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무렵 불교, 천주교 또한 높은 성장을 경험했다. (정창수·김신열, 1993)

벨라는 뒤르케임의 사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계승하여 시민

종교론을 설파하였다. (Bellah, 1967) 벨라는 루소로부터 유래한 시민종교 개념을 통해 미국 사회의 종교적 성격을 밝혀냈다.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종교적 상징들 중에는 유대-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이 많지만, 미국의 독특한 역사와 경험을 반영한다. 시민종교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사회에 적용되었다.

예컨대 강인철(2014; 2017)의 경우 한 사회에 한 개의 시민종교가 존재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비판하며, 해방 후 한국 현대사에서 남북 간 시민종교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시민종교' 내에서 '민주-공화주의 시민종교'가 분화되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벨라의 논의와 달리 강인철(2014; 2017)의 한국 시민종교 연구는 실제 종교와의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벨라의 시민종교론이 사회의 종교적 성격을 논한다면, 종교와 정치 제도, 국가 간의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논의도 전개되어 왔다. (Yinger, 1970; Johnstone, 1975; 강인철, 2012; 2013; 전명수, 2013) 종교의 정치 참여는 협력이나 사회통합 뿐 아니라 갈등이나 저항으로도 표출될 수 있다. (김명배, 2009) 예컨대 한국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종교계는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한 축을 맡기도 했으나, 저항 운동을 결속시키는 중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의 정치 참여가 가진 양면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은 축적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특정 교파나 종교 단체 및 성직자 등 대표적 행위자들의 역할만 부각된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친정부적 혹은 반정부적 종교 지도자가 전체 신도들의 정치 참여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2. 종교와 정치 참여 : 경험 연구의 흐름

종교-사회 혹은 종교-국가 간 관계에 대한 거시적 논의들에서 종교 신도 개개인의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 참여 간 경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자본론, 또 다른 하나는 정치학에서 종교와 종교성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 흐름이다.

첫째로 사회자본론은 사회 전체의 종교적 성격보다는 시민들의 종교 단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결속적이고 교량적인 사회 연결망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종교 단체는 가장 중요한 자발적 결사체로 간주되며,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자본론의 논의는 미국 사회에 대한 경험 연구로 뒷받침 되고 있다. (Putnam, 1995; Wuthnow, 2002; Cornwel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와 다른 자발적 결사체들 간 관계적 맥락이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다.

둘째로 정치학 경험 연구 일각에서는 종교가 심리적인 자원, 조직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Harris, 1994; Layman, 1997; Cassel, 1999; Jones-Correa & Leal, 2001; Lewis et al, 2013) 종교의 유형 및 교파에 따른 차이와 의례 참여, 종교적 신념 등 종교성의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종교적 요인과 정치 참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종교 단체의 중심적인 위치를 고려해, 종교 단체와 다른 결사체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상술한 연구 흐름은 모두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자본론에서 종교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주로 연고 집단, 인맥 등 한국 사회 자본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종교의 영향

력을 규명하려는 정치 참여 경험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송재룡· 조광덕 2015; 정상호· 조광덕 2016) 서구 종교 사회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종교 변수(삶에 미치는 영향, 종교 참석 빈도, 종교 유형, 종교 믿음 정도)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론화하지 못했다. 그 외에 투표 선택, 이념, 정부 지지 등을 종속 변수로 하는, 일부 정치 행태 경험 연구에서 종교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장승진· 하상응, 2011; 최현종, 2013; 안종기, 2016) 종교 간 차이의 일관적인 영향력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사회자본론과 정치 행태 경험 연구 양쪽에서 종교가 주목 받지 못하고 있지만, 종교-사회, 종교-국가 간 거시적 맥락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 흐름은 일종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역사, 문화적으로 서구권과는 다른 종교적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이 경험 연구를 어렵게 한다. (한내창, 2004) 본래 종교 대상 경험 연구는 종교성의 측정, 교파 분류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Wald & Wilcox, 2006) 한국의 경우 종교적 다원성으로 인해 (Kim, 2002; Keel, 2010; Kim, 2010; 김철수, 2013) 경험 연구의 척도를 개발하기가 더 어렵다. 서구로부터 전래된 개신교와 천주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무종교인 비율도 절반에 달한다. 종교학자들은 무교, 도교, 유교 등 사회 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민간 신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서구권 경험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기독교 중심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의 불교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비해 의례 참여가 낮은데, 과연 종교성이 낮은 것일까? 또한 종교 종류에 따른 차이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해석과 이론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성격이 다른 종교의 공존이 경험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서구의 종교성 척도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한내창, 2001)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성과 종교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종교가 결사체 참여의 맥락에

서 작동해 만들어내는 정치적 영향력이다. 즉 본 연구는 종교를 종교단체 참여와 정치 활동 참여 간 존재하는 관계의 맥락에 위치시켜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 변수인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면서, 그 중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으로 정치 참여의 이질적인 유형을 재구성하여 세 가지 주요 참여 유형을 제시한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치 참여 유형이 제기되어 왔고, 선거(투표) 참여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 분류가 가장 간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 선거 참여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로 다시 분류한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실제 응답자들의 참여 응답의 유사도를 통해 유형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독립 변수인 자발적 결사체의 경우 사회자본론의 논의를 소개한 뒤 한국적 맥락에 주목한다. 연고 집단 등 한국의 사적 결사체 중심의 연결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존의 정치 참여 논의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재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반박, 한국의 사적 결사체 역시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나아가 결사체 참여 유형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종교 단체 역시 하나의 자발적 결사체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사적 결사체와 공적 결사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민들을 발견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가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교와 정치 참여의 관계가 결사체 참여의 맥락에서 규명됨은 물론, 자발적 결사체 논의에서 종교 단체의 중심적인 영향력도 부각된다.

2-3. 정치 참여의 요인과 유형

어떤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요인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나이가 많으면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젊은 경우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 참여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정인, 2012)

다만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높으며 인맥이 넓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박찬욱(2005)은 한국 사회에서 연령이 낮고, 교육과 소득 수준은 높으며, 남성이고, 진보 성향에,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는 등 특정한 사람들이 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송호근(2017) 역시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젊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음을 통계적으로 제시한다. 정치 참여는 양적인 수준 뿐 아니라 대표성도 중요하다.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은 차치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정치 참여를 주도하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다. (조정인, 2012) 이처럼 교육 수준,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olfinger & Rosenstone, 1980) 하지만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주장(Brody, 1978)도 제기되므로 다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심리적 요인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 정치 관심도와 정치 효능감 등 정치심리적 자원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Campbell et al, 1960; Putnam, 2000) 물론 이런 요인들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효능감도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요인에는 보다 유전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성격의 5대 요소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이 유형 별 정치 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Ha et al, 2013) 각 성격 특

성의 효과는 정치 참여 유형에 따라 차별적이긴 하지만, 유전적인 성격의 개인차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상쇄하고, 신뢰 등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여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투표에 참여하기도 한다. (Rosenstone & Hansen, 2003; 김영태, 2012; 김석호·박바름, 2012) 사회 연결망의 구조적 압력도 투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한수진, 2015) 또한 가까운 사람과 함께할 경우 정치적 위험성이 높은 집회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McAdam, 1986; McAdam & Paulsen, 1993)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관계적 요인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다.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적 덕목과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는 민주주의의 학교로 칭송받았다. 이를 통해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정치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Brady et al, 1995; Jacobs & Skocpol, 2005) 미국 결사체 민주주의의 전성기에 대규모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계급을 초월한 공동체로 작동했다. (Skocpol, 2003)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도 결사체 참여는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숙종·유희정, 2010; 박바름, 2012; 도묘연, 2017)

그런데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참여하는 결사체의 숫자보다 구체적인 관계 유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동창회, 향우회 등 이른바 연고 집단 혹은 사적 결사체와 시민 단체, 주민 협회와 같은 공적 결사체의 성격이 같을 수는 없다. (이은혜, 2016) 본 연구에서는 잠재 집단 분석(LCA)을 통해 결사체 참여 유형을 분류한다. (이기영, 2008; 김석호, 2016) 본 연구의 관심사인 종교 단체 참여 역시 이 맥락에서 위치를 확인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정치 참여 유형 역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정치 참여의 정의를 제도적인 영역에 한정시키기도 하고, 정치

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행동 전반으로 확장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유형 구분 역시 다양한데 반 데스의 경우 제도적 참여, 정부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제도적 참여, 공동체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시민 참여, 세 가지 다 아니지만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표현적 참여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van Deth, 2014)

제도적 참여에는 투표 뿐 아니라 정당 가입, 정치인 접촉 등이 포함된다. 비제도적 참여에는 시위, 서명, 거리 점거, 플래시 몹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시민 참여의 경우 자원 봉사 등이 포함되며 표현적 참여에는 불매나 구매, 정치 소비주의 등이 포함된다. 김한나(2016)는 반 데스의 유형 분류를 활용하되 제도적 참여, 저항적 참여, 표현적 참여로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더 단순한 구분은 선거 참여와 비 선거 참여의 유형 분류다. (김욱, 2013) 투표 참여는 쉬운 참여로, 시위와 집회 등 비선거적 정치 참여는 어려운 참여로 명명되기도 한다. (김욱·김영태 2006) 그 외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나 통상적-비통상적 참여, 엘리트 주도형-시민 주도형 참여 등의 분류도 가능한데, 각 유형 분류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진보미, 2017)

선거 참여와 비 선거 참여의 구분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비 선거 참여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투표 참여, 정치 행동 참여, 생활 정치 참여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대로 투표 참여의 경우 다른 유형의 정치 참여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 선거 참여를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로 조작적으로 나눈다.

정치 행동 참여는 정부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반 데스의 분류에서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 일부를 함께 포괄하는 유형이다. (van Deth, 2014) 구체적으로 시위 참여, 정치 모임 참가, 정치인 혹은 언론 접촉, 사회 정치적 기부, 선거 관련 인터넷 활동, 온라인 집단행동, 인터넷 정치 댓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당 된다. 최근 온라인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트위터 등 SNS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김상돈· 김승녕, 2012; 이준복, 2012; 이준용 외, 2007; 장덕진, 2011; 2012; 장성호, 2013) 하지만 온라인 정치 참여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는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나은경, 2007)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시위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확률이 높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전혀 이질적으로 볼 근거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참여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정치 행동 참여의 일부로 간주할 것이다.

일상적 정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정파적 성격이 약하다. 생활에 밀접한 의제들을 다루기에, 참여 민주주의· 미시 민주주의와 친화성이 높다. (조대엽, 2014; 2015) 반 데스의 분류는 표현적 참여 일부와 비제도적 참여 일부를 포괄한다. (van Deth, 2014) 구체적으로는 서명 운동과 불매/구매 운동이 포함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서명, 무상 급식 서명, 갑질 기업 제품 불매, 공익적 기업 제품 구매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 다만 물리적인 저항 행동(시위, 집회)을 수반하지는 않기에, 일상적 정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용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작적 유형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하였다. 가상적인 유형과 실제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 행위들의 근접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투표 참여와 각각의 비 선거 정치 참여 행위를 포함한 MDS 분석에서 투표 참여, 서명과 불매, 그리고 나머지 정치 참여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자발적 결사체와 참여 민주주의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주목한 것은 자발적 결사체의 활발한 활동이었다. (Tocqueville, 2003[1835]) 유럽과 달리 제 조건의 평등이 가능했던 미국에서, 시민들의 결사 활동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스카치폴은 계급을 초월하는 전국 규모의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kocpol, 2003) 대규모 자발적 결사체의 부흥은 미국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상징한다. 도시와 주 단위의 지역 지부가 설치되고, 지방과 중앙의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시기다. 퍼트남 등 사회자본론자들 역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Putnam, 1995; Wuthnow, 2002)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들의 신뢰와 시민성을 증진시켜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평준화 기능도 수행한다. (Brady et al, 1995; Jacobs & Skocpol, 2005; Kim, 2011)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신뢰, 시민성을 증진한다는 일방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결사체의 기능은 사회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Kim, 2008; 2011) 결사체의 신뢰, 시민성 창출 효과가 낮은 사회에서는 결사체 참여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하지 못했다. (Kim, 2016)

송호근(2006)이 지적하듯,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적 도덕이나 제도로 뒷받침 되지 못한 평등주의가 역기능을 일으킨다. 시민성이 결핍되고,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자발적 결사체가 제대로 작동하긴 어렵다. (송호근, 2016; 2017) 오히려 사적 인맥을 축적하는 도구가 되어 버린다. (임자은·김석호, 2018) 한국의 경우 자발적 결사체가 신뢰와 시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im, 2008; 2011) 이는 한국 시민 사회가 사적 결사체 중심의 동질적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적 결사체의 폐쇄적인 문화는 일반 신뢰는 낮는데 사적 신뢰만 높은 신뢰의 격차를 만

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이다. (Delhey et al, 2011) 이는 시민 사회의 질 (quality of civil society)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적 결사체 중 대표적인 단체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연고 집단이다. (류석춘 외, 2002; 2008) 한국인의 높은 연고 집단 참여율은 전 계층을 아울러 나타난다. (이재열·남은영 2008) 연고 집단은 평상시에 느슨하지만 타 집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병은, 2007) 그 외에 각종 여가 모임, 문화 단체, 친목 모임도 사적 결사체에 포함된다.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공적 결사체보다 사적 결사체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rk & Shin, 2005; 이기영, 2008) 사적 결사체는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질 수 있지만 외부에 배타적일 수 있다고 지적된다. (Levi, 1996; Chambers & Kopstein, 2001; 이은혜, 2016; 진보미, 2017)

그러나 개인은 연고 집단과 같은 사적 결사체에 참여할 뿐 아니라 공적 결사체에 동시에 가입한다. 한국인의 결사체 참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참여의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사적 결사체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람, 공적 결사체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람,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어느 한쪽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 등 가상의 유형 구성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기영, 2008; 김석호, 2016)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적 결사 중심 연결망도 정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기영, 2008) 시민성 증진에도 일부분 기여한다. (김석호, 2016) 어떤 결사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 보다는 연고 집단과 같은 사적 결사체라도 참여하는 것이 시민 사회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김석호, 2016) 사적 결사체 참여가 공적 결사체 참여와 배타적이지도 않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듯 (McAdam & Paulsen, 1993) 사적 결사체 참여가 공적 결사체 참여로 이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적 결사체, 공적 결사체 외에 종교단체 또한 자발적 결사체의 하나다. (임자은·김석호, 2018) 단순히 종교 의례

를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친목을 도모하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종교 단체는 일반적인 결사체와 달리 참여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계 맺기 전략도 다르다. (임자은·김석호, 2018)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연고집단, 여가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전략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났다.

한국 시민 사회 연구에서 종교의 결사체적 성격과 특징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서구의 자발적 결사체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5. 종교와 정치 참여 : 한국인의 결사체 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한편 정치학자들은 종교 참여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 (Harris, 1994; Layman, 1997; Cassel, 1999; Jones-Correa & Leal, 2001; Lewis et al, 2013) 해리스에 따르면 종교는 조직적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s)과 인식적, 감정적 자원(cognitive/ emotional resources)을 제공하여 정치적 동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rris, 1994) 인식적, 감정적 자원은 동기, 집단 의식, 문화로 나뉘는데, 동기에는 도덕적 이슈나 효능이, 집단 의식에는 계급이나 인종, 문화에는 아이콘(icon)과 종교적 언어 등이 포함된다. 루이스 외의 경우에도 종교가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종교성의 개인적인 양상과 참여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Lewis et al, 2013) 종교성의 내적 동기와 함께 정치적 동원 기제로서 종교 단체의 역할은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결사체와의 맥락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한국의 경우 종교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경험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종교성이 사회정치적 참여 일반에 영향을 미치며 (송재룡·조광덕 2015) 자원 봉사 단체, 시민단체 등 일부 단체 참여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 (정상호·조광덕 2016)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 집회 참여가 일부 유형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 et al, 2013) 종교 참여만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는 경험 연구는 종교와 다른 결사체 간의 상관관계를 간과할 수 있다. 사회자본론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결사체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ornwell, 2004) 이런 네트워크와 정치 참여의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

토크빌이 19세기 미국의 타운 자치에서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후로 (Tocqueville, 2003[1835]), 종교는 결사체 참여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왔다. 예컨대 스카치폴의 연구에서 19-20세기 중 설립된, 계급을 초월한 전국 규모의 결사체들 상당수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Skocpol, 2003) 미국의 개신교도, 가톨릭교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기사단, 종교 우애 단체, 기독교 부인 협회, 전도 협회, 금주 운동 협회 등 대규모 결사체를 설립했다.

그런데 종교의 역할은 단지 큰 규모의 종교 결사체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퍼트남은 종교 집회와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결사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Putnam, 2000; Putnam & Campbell, 2010) 종교 참여가 다른 결사체 참여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경험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 되었다. 콘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회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교회가 핵심에 놓여 있다. (Cornwell, 2004)

물론 선진국 중 가장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인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상당수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개신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Putnam & Campbell, 2010) 가톨릭 역시 라틴계 이민자의 유입으로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적 활력은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의 경우 종교적 다원주의로 잘 알려져 있고 (Kim,2002; Keel, 2010; Kim, 2010; 김철수, 2013) 3대 종교의 인구가 20세기 후반 크게

성장했음에도 (정창수·김신열, 1993) 여전히 무종교인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사회학에서 종교와 국가, 민주화 등 거대 담론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논의는 진행되었지만 (강인철, 2013) 자발적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종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경험 연구나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하나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다루어지는 정도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 종교는 결사체 네트워크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YMCA, 영등포 산업선교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종교 결사체들은 각 부문 운동(학생, 노동, 농민, 여성)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해 운동에 동원했으며, 필요에 따라 세계교회협의회(WCC)나 교황청 등 국제 종교 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김명배,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김민아, 2013) 각 부문 운동의 조직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87년 직선제 시행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종교계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도 종교계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 공명선거 실천 및 감시 활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등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전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엄한진, 2004; 2006) 한편 종교 기반 시민 단체들이 종교적 차이를 상실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명수, 2015; 2016)

그러나 서론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종교는 여전히 정치 참여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종 종교적 상징, 의례, 조직을 동원한 정치 행위들은 광장과 투표장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종교 기반 시민 단체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비판은, 그 단체들이 일반 시민 단체들의 활동에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기에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콘웰의 미국 연구처럼 (Cornwell, 2004) 한국의 결사체 네트워크에서 종교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교 인구의 비율이 미국처럼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처럼 종교계가 사회 전면에 나서는 일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종교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집단은 존재하고 있다. (Kim & Lim, 2017)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기 보다는, 종교 중심적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예배당과 법당에 고립된 신도가 아닌 활발한 시민으로서 그들이 갖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결사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인들은 정치 행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 결사체 참여 유형 연구에서는 (이기영, 2008; 김석호, 2016) 사적 결사체 중심 참여 유형, 공적 결사체 중심 참여 유형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다. 본 연구는 결사체 참여 유형 분류 맥락에서 종교의 위치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 중심적 결사체 참여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6.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종교인의 결사체 참여가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종교는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종교 유형 (무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과 의례 참여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의 수준이 달라지는가?
- 2) 한국인의 결사체 참여 유형 분류에서 종교 중심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
- 3) 정치 참여 유형 분류는 실제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뒷받침되는가?
- 4) 각 결사체 유형은 정치 참여 유형 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종교 중심 유형은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6년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에서 2003년부터 실시 중인 조사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6년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KGSS는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우수한 서베이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조사 시기 마다 포함되는 모듈과 문항이 다른데, 본 연구에 필요한 자발적 결사체 참여, 정치 참여 문항이 가장 잘 반영된 2016년 자료를 사용한다. 직전 자료인 2014년에 비해 해당 문항의 종류가 다양하다. 사례수는 1052개이며 가중치 변수가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시 가중치를 사용했다. 참고로 2016년 자료는 6-8월 중 수집되었다.

3-2. 변수의 조작화

종속 변수인 정치 참여는 투표 참여 변수와 그 외의 정치 참여 변수를 사용한다. 투표 참여 변수의 경우 “귀하는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문항을 사용한다. 참여는 1로 무응답과 불참은 0으로 코딩하였다. 약 77%의 응답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투표 이후의 설문 조사가 갖는 일반적인 편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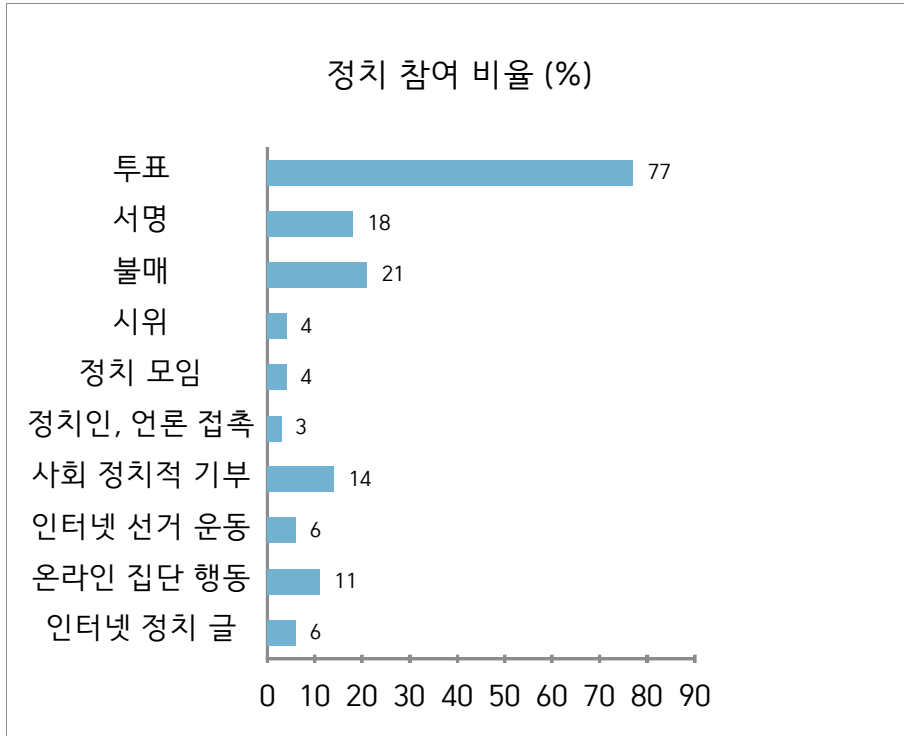
그 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전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참여 유형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는 1을, 그 외의 응답(“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전에는 안했

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은 0을 부여하였다. 결측값에도 0을 부여하였다.

참여 방식은 총 9 가지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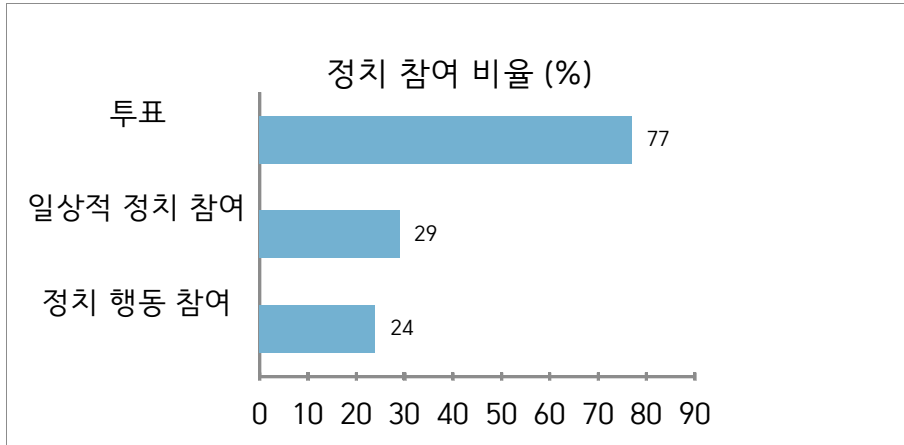
- 1) 진정서에 서명하기
- 2) 정치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
- 3) 시위에 참여하기
- 4) 정치 모임(정치 관련 토크 콘서트 및 강연회)이나 집회(촛불 문화제, 추모회 등)에 참가하기
- 5)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혹은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 6)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
- 7) 선거와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오디오 등을 인터넷 또는 SNS, 카카오톡에 공유하기
- 8) 온라인 상에서 집단 행동 (리본/배너 달기, 추모, 관련 글 올리기 등)에 참여하기
- 9)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디씨, 오유, 일베, 뽐뿌, 루리웹 등)이나 인터넷 카페 및 클럽,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방문하여 정치 관련 게시물이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글 올리기

<그림1> 정치 참여 비율 (1)



<그림1>에서 응답자의 정치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비 선거 정치 참여 중에서는 서명과 불매가 가장 높다. 나머지 정치 참여의 경우 대다수가 10% 미만이며 기부와 온라인 집단행동만 10%를 넘겼다. 한국 시민들이 투표에는 많이 참여하지만 그 외적인 정치 활동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명과 불매를 일상적 정치 참여로, 나머지는 정치 행동 참여로 포함시킨다. 서명과 불매 하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으면 1의 값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를 만들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일상적 정치 참여는 응답자의 29%, 정치 행동 참여는 응답자의 24%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정치 참여 비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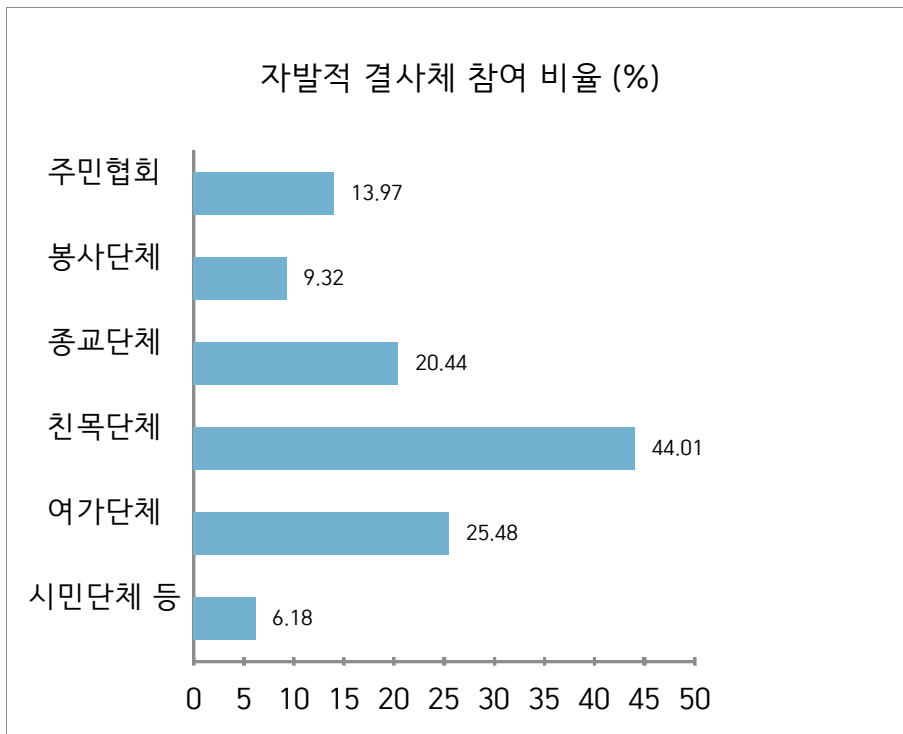
독립 변수의 경우 다음 문항을 사용하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잠재 집단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한다.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종류의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에는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하 생략)”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와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에 1의 값을,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와 “소속된 적 없다”에 0을 부여하였다. 결측값에도 0을 부여하였다. 제시된 단체는 총 7가지 종류로, 다음과 같다.

- 1) 주민 협회, 반상회
- 2) 사회봉사 클럽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
- 3) 종교집단
- 4) 친목모임, 동창모임, 향우회
- 5)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
- 6) 직업·직능 단체, 상거래 단체
- 7) 기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모임 등)

본 연구의 분석에서 직업·직능단체는 제외된다. 직업적 목적에서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직업단체와 함께 종교단체까지도 제외시켜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Cassel, 1999; 박바름, 2012), 본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종교단체도 자발적 결사체로 포함시킨다. (Putnam, 2000; 임자은·김석호, 2018)

여섯 가지 종류의 결사체 각각의 참여 비율은 다음 <그림3>과 같다. 친목단체 참여 비율이 약 44%로 가장 높으며 여가단체는 약 25%로 두 번째로 높다. 사적 결사체 참여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자발적 결사체 참여 비율



종교 관련 변수는 종교의 유형, 종교 단체 참여, 종교 의례 참여를 포함한다. 종교의 유형은 무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로 나뉜다. 약 46%가 무종교, 약23%는 불교, 약21%는 개신교, 나머지 천주교가 약9%를 차지한다. 기타 종교는 매우 적은 숫자만 존재했다. (약 1%)

종교 단체 참여 변수는 앞서 언급한 단체 참여 문항을 활용해 불참은 0, 참여는 1의 값을 갖도록 구성했다. 종교 의례 참여 변수는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미사) 드리러 가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데이터의 변수를 역코딩하여 값이 클수록 참여율이 높은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전혀 가지 않는다는 1, 일 년에 한 번 미만은 2, 일 년에 한 번은 3, 일 년에 몇 번은 4, 한 달에 한 번은 5, 한 달에 두세 번은 6, 일주일에 한 번은 7, 일주일에 여러 번은 8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제 변수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정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로 구성된다.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여부, 가구 소득, 교육 수준, 지역, 이념, 내적 정치 효능감, 외적 정치 효능감, 일반 신뢰 변수가 각 분석의 기본 모델에 통제된다.

연령의 경우 18세부터 99세까지 분포한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무응답자와 무소득을 0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 단위로 코딩하였다.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은 하나로 합쳤다. 교육 수준은 단년 학교를 기준으로 무학(서당 포함),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하, 대학교 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정치 참여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서 내적 정치 효능감, 외적 정치 효능감, 일반 신뢰를 포함시켰다. 일반 신뢰의 경우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다. 내적 정치 효능감은 응답자 개인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효능감이고, 외적 정치 효능감은 정부나 정치인에 대해 느끼는 효능감이므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이기영, 2008; 김한나, 2016)

내적 정치 효능감의 경우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문항을 역코딩하여 (매우 찬성이 5가 되도록)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없다” (매우 찬성이 1, 매우 반대가 5) 문항에 합쳐 평균값을 내어 변수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효능감이 높다.

외적 정치 효능감의 경우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매우 찬성이 1, 매우 반대가 5) 와 “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 (앞과 동일) 두 변수를 역코딩하여 (매우 찬성이 5가 되도록) 합쳐 평균값을 내어 변수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변수 역시 값이 클수록 효능감이 높다.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1> 기초통계 :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종속 변수				
*투표 참여	1052	0.77	0.42	0-1
서명	1052	0.18	0.38	0-1
불매	1052	0.21	0.41	0-1
시위	1052	0.04	0.20	0-1
정치 모임	1052	0.04	0.18	0-1
정치인, 언론 접촉	1052	0.03	0.17	0-1
사회 정치적 기부	1052	0.14	0.34	0-1
인터넷 선거 운동	1052	0.06	0.24	0-1
온라인 집단 행동	1052	0.11	0.31	0-1
인터넷에 정치 글	1052	0.06	0.24	0-1
*일상적 정치 참여 (서명 + 불매)	1052	0.29	0.45	0-1
*정치 행동	1052	0.24	0.43	0-1

참여				
독립 변수				
단체 참여				
-종교단체	1052	0.20	0.40	0-1
-주민협회	1052	0.14	0.35	0-1
-봉사단체	1052	0.09	0.29	0-1
-친목단체	1052	0.44	0.50	0-1
-여가단체	1052	0.25	0.44	0-1
-시민단체 등	1052	0.06	0.24	0-1
통제 변수				
종교				
-무종교	1052	0.46	0.50	0-1
-불교	1052	0.23	0.42	0-1
-개신교	1052	0.21	0.41	0-1
-천주교	1052	0.09	0.29	0-1
-기타	1052	0.01	0.10	0-1
종교의례참여	1050	3.26	2.59	1-8
결혼 유무	1052	0.58	0.49	0-1
자녀 유무	1052	0.71	0.45	0-1
여성	1052	0.55	0.50	0-1
연령	1052	49.59	18.60	18-99
교육 수준				
- 1)무학	1052	0.05	0.21	0-1
- 2)초, 중 학교	1052	0.19	0.40	0-1
- 3)고등학교	1052	0.25	0.43	0-1
- 4)전문대	1052	0.11	0.31	0-1
- 5)대학교	1052	0.33	0.47	0-1
- 6)대학원	1052	0.07	0.26	0-1
가구 소득				
- 1)무소득, 무응답	1052	0.09	0.29	0-1
- 2)100만 미만	1052	0.13	0.3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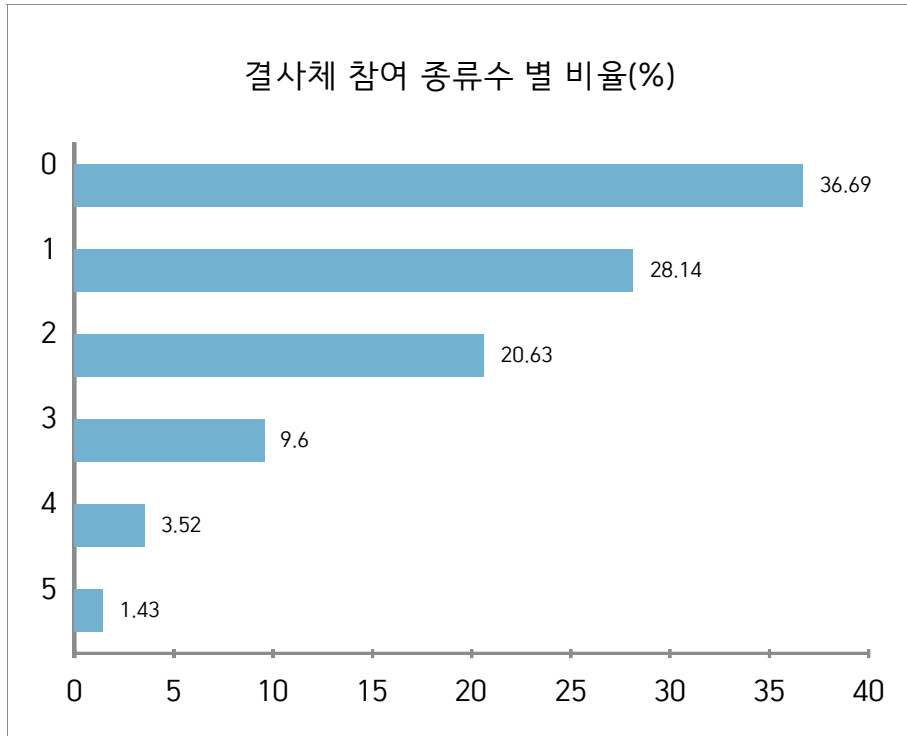
- 3)200만 미만	1052	0.10	0.30	0-1
- 4)300만 미만	1052	0.12	0.33	0-1
- 5)400만 미만	1052	0.13	0.33	0-1
- 6)500만 미만	1052	0.11	0.31	0-1
- 7)600만 미만	1052	0.10	0.30	0-1
- 8)600만 이상	1052	0.22	0.41	0-1
지역				
- 서울	1052	0.17	0.38	0-1
- 경기	1052	0.26	0.44	0-1
- 강원	1052	0.04	0.19	0-1
- 충청	1052	0.11	0.31	0-1
- 경상	1052	0.28	0.45	0-1
- 전라	1052	0.13	0.34	0-1
- 제주	1052	0.01	0.11	0-1
이념 (보수)	1017	3	0.94	1-5
일반 신뢰	1051	2.38	0.78	1-4
내적 효능 감	1046	3.12	0.82	1-5
외적 효능 감	1041	2.28	0.90	1-5

4. 분석 결과

4-1. 종교와 결사체 참여

결사체 참여 유형을 분류하기 전에, 먼저 종교 유형과 종교 의례 참여가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주민협회, 봉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여가단체, 시민단체 등 여섯 가지 항목의 결사체 참여 더미 변수를 합쳐서 0부터 6의 값을 가지는 결사체 참여 종류수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만 실제로 여섯 가지 종류 모두에 참여한 응답자는 없었다. 평균적인 결사체 참여 종류수는 1.19개였다. 다음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약 37%는 여섯 가지 중 어떤 결사체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약 28%는 한 종류의 결사체에, 약 21%는 두 종류 이상의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약 15%만이 세 종류 이상의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림4> 결사체 참여 종류수



다음으로, 종교 유형과 종교 의례 참여를 독립변수로 하고 통제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의 경우 종교 유형만, 모델2의 경우 종교 의례 참여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모델3은 종교 유형과 종교 의례 참여를 모두 포함시켰다. 모델1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p < 0.001$ 수준에서 무종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일 경우, 무종교인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한다. 하지만 모델3에서는 종교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종교 의례 참여의 경우 모델2와 모델3에서 모두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모델3을 기준으로 종교 의례 참여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참여하는 결사체 숫자는 0.09개 증가한다. 다른 변수가 평균값일 때, 종교 의례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1.05개의 결사체에 참여하지만, 종교 의례에 일주일에 여러 번 참여하는 사람은 1.69개의 결사체에 참여한다.

<표2> 종교와 결사체 참여

결사체 참여 분석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종교 (기준 : 무종교)			
- 불교	0.20 (0.11) †		-0.01 (0.12)
- 개신교	0.65 (0.12) ***		0.24 (0.17)
- 천주교	0.62 (0.16) ***		0.31 (0.18) †
- 기타	-0.16 (0.28)		-0.33 (0.23)
종교 의례 참여		0.12 (0.02) ***	0.09 (0.03) ***
통제 변수			
결혼 유무	0.10 (0.13)	0.11 (0.13)	0.09 (0.13)
자녀 유무	0.24 (0.17)	0.25 (0.17)	0.26 (0.17)
여성	-0.13 (0.08)	-0.16 (0.08) †	-0.16 (0.08) †
연령	0.01 (0.00) ***	0.01 (0.00) **	0.01 (0.00) **
소득 수준	0.06 (0.02) ***	0.06 (0.02) ***	0.07 (0.02) ***
교육 수준	0.20 (0.04) ***	0.20 (0.04) ***	0.20 (0.04) ***
지역 (기준: 서울)			
- 경기	0.06 (0.14)	0.02 (0.14)	0.05 (0.13)
- 강원	0.38 (0.24)	0.29 (0.25)	0.33 (0.24)
- 충청	0.17 (0.17)	0.17 (0.17)	0.17 (0.16)
- 경상	-0.00 (0.12)	-0.07 (0.12)	-0.02 (0.12)
- 전라	-0.18 (0.17)	-0.17 (0.16)	-0.16 (0.16)
- 제주	-0.17 (0.28)	-0.16 (0.27)	-0.12 (0.27)
이념 (보수)	-0.12 (0.05) **	-0.13 (0.05) **	-0.13 (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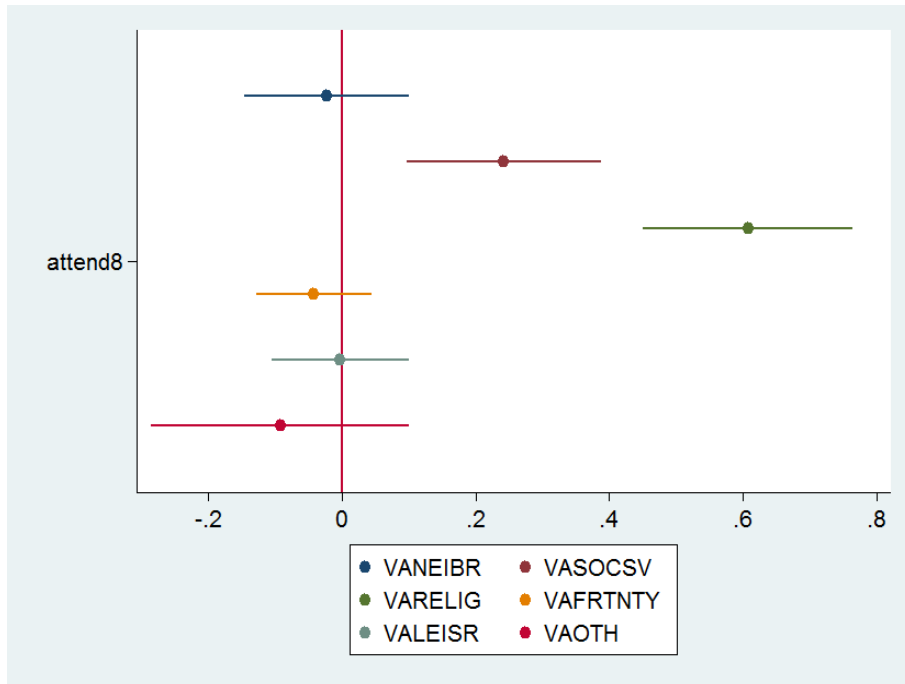
일반 신뢰	0.09 (0.05) †	0.09 (0.05)	0.09 (0.05)
내적 정치 효 능감	0.01 (0.06)	0.02 (0.06)	0.01 (0.06)
외적 정치 효 능감	-0.02 (0.05)	-0.03 (0.05)	-0.02 (0.04)
상수항	-0.53 (0.34)	-0.50 (0.34)	-0.53 (0.34)
N	1007	1006	1006
Pseudo R ²	0.1805	0.1880	0.1949

*** p<0.001 ** p<0.01 * p<0.05 † p<0.1

그런데 결사체의 종류에 종교단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종교 의례 참여가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부분이 종교단체 때문일 수 있다. 주민협회, 봉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여가단체, 시민단체 등 여섯 가지 결사체 참여 더미 변수를 각각 종속 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 번의 분석에서 Coefficient Plots을 합쳐 다음 <그림5>로 표현하였다. 통제 변수는 동일하나, Coefficient Plots 그림에서는 통제 변수를 생략했다. 종교 유형 변수 역시 생략했다. 다음 <그림5>의 계수 값은 독립 변수인 종교 의례 참여(변수명 attend8)의 효과를 보여준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주민협회, 봉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여가단체, 시민단체 등을 종속 변수로 한 별개의 분석이다. 종교 의례 참여가 결사체 참여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종교단체와 봉사단체 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사체의 경우 계수값의 신뢰구간이 0에 걸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다.

정리하자면 종교 의례 참여는 종교단체와 봉사단체에 참여할 확률을 높이고, 참여하는 결사체 종류의 숫자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실제 시민들의 결사체 참여 유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4장 3절에서 잠재 집단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그림5> 의례 참여와 종류 별 결사체 참여 Coef. Pl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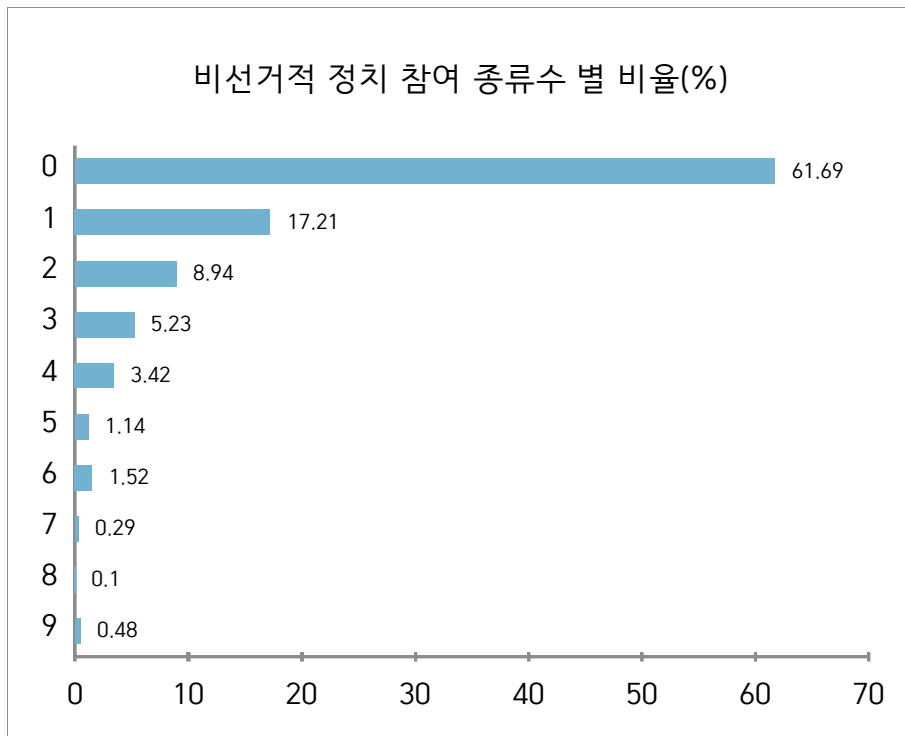
4-2. 종교와 정치 참여

다음으로 종교 유형과 종교 의례 참여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 참여 더미 변수를 합쳐서 정치 참여 숫자 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투표 참여 문항은 전체 응답자의 77% 가량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다른 정치 참여 문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투표 참여까지 포함시킬 경우 변수 값의 분포가 지나치게 특정 값(1)에 편향된다. 즉, 대다수 응답자가 투표에만 참여하고 다른 정치 참여 문항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을 비선거적 참여 전체에 한정하여 정치 참여 숫자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아홉 가지 문항의 더미 변수를 합쳤기 때문에 0부터 9의 값을 갖는다. 평균적인 비선거적 정치 참여 숫자는 0.86회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62%는 어떤 종류의 비선거적 정치 참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가지 종류의 비선거적 정치 참여를 경험한 사람이 약 17%, 두 가지 종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단지 약 21%에 그쳤다.

<그림6> 비선거적 정치 참여 종류수



종교 유형과 종교 의례 참여, 종교 단체 참여를 독립변수로 하고 통제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모델1의 경우 종교 유형과 종교 의례 참여, 모델2의 경우 종교 유형과 종교 단체 참여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모델3의 경우 종교 단체 참여(더미 변수)까지 포함시켰다. 모델1과 모델2 각각 종교 의례 참여, 종교 단체 참여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에서, 종교 의례 참여 한 단위가 증가하면 참여하는 비선거적 정치 참여가 0.09

개 증가한다. 모델2에서, 종교 단체 참여 여부는 비선거적 정치 참여를 0.37개 증가시킨다. 다만 모델3에서 두 가지 변수를 함께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표3> 종교와 비선거적 정치 참여

정치 참여 (비선거적 참여) 분석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종교			
- 불교	-0.25 (0.16)	-0.10 (0.13)	-0.24 (0.16)
- 개신교	-0.22 (0.24)	-0.02 (0.18)	-0.26 (0.24)
- 천주교	0.12 (0.25)	0.29 (0.28)	0.10 (0.26)
- 기타	0.29 (0.59)	0.39 (0.60)	0.29 (0.57)
종교 의례 참여	0.09 (0.04) *		0.07 (0.04)
종교 단체 참여 (더미 변수)		0.37 (0.19) *	0.21 (0.21)
통제 변수			
결혼 유무	0.14 (0.14)	0.16 (0.14)	0.15 (0.14)
자녀 유무	-0.18 (0.21)	-0.20 (0.21)	-0.18 (0.21)
여성	-0.00 (0.12)	0.01 (0.12)	-0.01 (0.12)
연령	-0.01 (0.00)	-0.01 (0.00)	-0.01 (0.00)
소득 수준	0.06 (0.02) *	0.06 (0.02) *	0.06 (0.02) *
교육 수준	0.15 (0.06) *	0.15 (0.06) *	0.15 (0.06) *
지역 (기준: 서울)			
- 경기	-0.32 (0.19) †	-0.32 (0.19) †	-0.33 (0.19) †
- 강원	-0.17 (0.31)	-0.13 (0.32)	-0.17 (0.32)
- 충청	-0.07 (0.29)	-0.10 (0.29)	-0.08 (0.29)
- 경상	-0.28 (0.18)	-0.26 (0.18)	-0.28 (0.18)
- 전라	-0.44 (0.20) *	-0.44 (0.20) *	-0.43 (0.20) *

- 제주	0.42 (0.41)	0.38 (0.42)	0.42 (0.41)
이념 (보수)	-0.26 (0.07) ***	-0.26 (0.07) ***	-0.26 (0.07) ***
일반 신뢰	0.00 (0.07)	0.00 (0.07)	0.00 (0.07)
내적 정치 효 능감	0.18 (0.10) †	0.18 (0.10) †	0.18 (0.10) †
외적 정치 효 능감	0.03 (0.07)	0.03 (0.07)	0.03 (0.07)
상수항	0.73 (0.49)	0.81 (0.49) †	0.77 (0.49)
N	1006	1007	1006
Pseudo R ²	0.1441	0.1411	0.1456

*** p<0.001 ** p<0.01 * p<0.05 † p<0.1

이상의 분석은 종교 의례 참여가 결사체 참여에, 종교 의례 참여와 종교 단체 참여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에서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사체 참여 유형에서 종교 단체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 정치 참여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4-3. 참여 유형 분류

4-3-1. 결사체 참여 유형

설문 참여자들의 결사체 참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집단 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의 통계량은 최적의 잠재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BIC (based on Log-likelihood), Likelihood Chi square 값이 낮아질수록 적합한 모형이다. 엔트로피는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다. 또한 잠재 집단 분석의 경우 $p < 0.05$ 가 아니라 $p > 0.05$ 가 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잠재집단을 3개까지 늘리면 BIC와 LL은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집단을 4개로 늘릴 경우 BIC가 다시 높아진다. 이를 고려해 볼 때 3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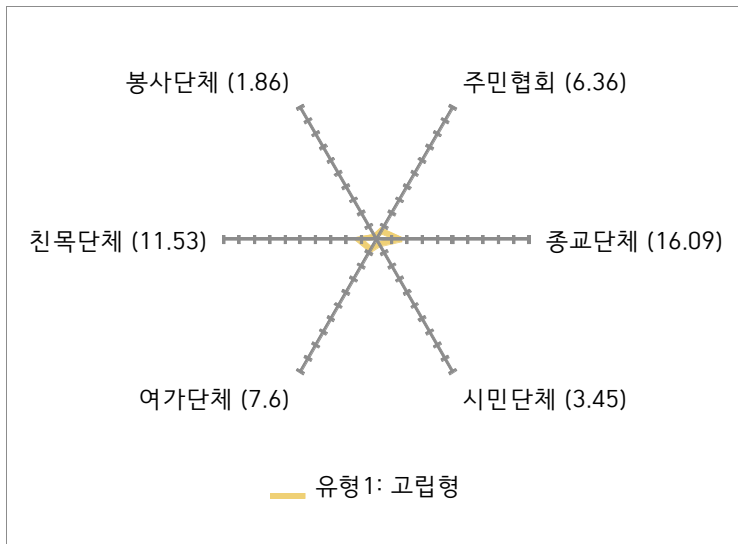
<표4> 잠재 집단 분석(LCA) 모델의 적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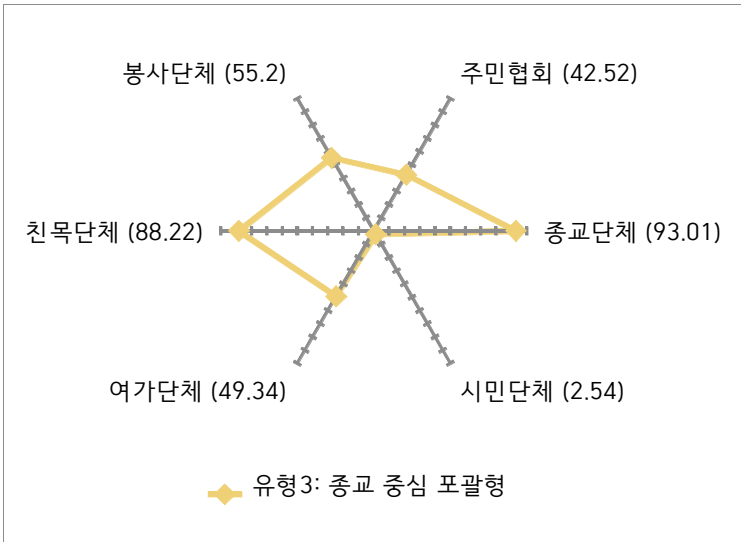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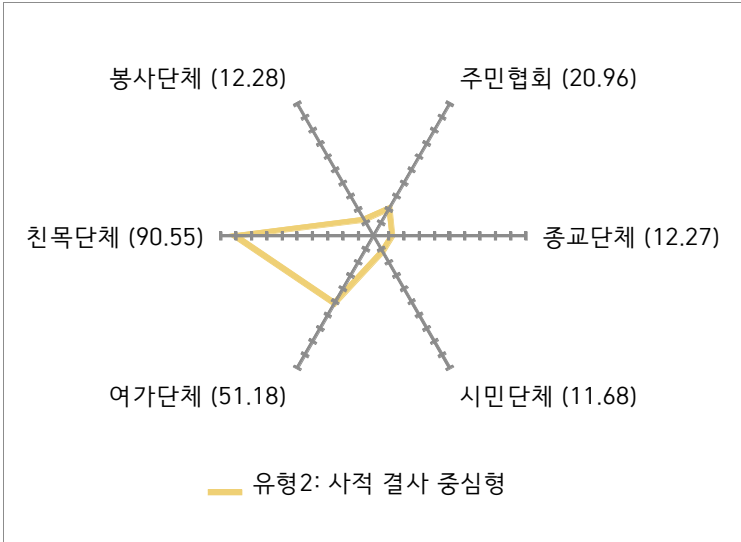
집단 수	BIC	LL	자유도 (degree of freedom)	p-value	엔트로피
2	5477.7418	-2693.6410	50	0.00011	0.6082
3 (선택)	5484.0215	-2672.4263	43	0.13	0.6178
4	5522.8898	-2667.5059	36	0.18	0.4946

<표5> 결사체 참여 잠재 집단 유형

잠재 집단	유형1: 고립형 (573명)	유형2: 사적 결사 중심형 (416명)	유형3: 종교 중심 포괄형 (63명)
종교단체	16.09%	12.27%	93.01%
주민협회	6.36%	20.96%	42.52%
봉사단체	1.86%	12.28%	55.20%
친목단체	11.53%	90.55%	88.22%
여가단체	7.60%	51.18%	49.34%
시민단체	3.45%	11.68%	2.54%

<그림7> 결사체 참여 유형 (결사체 별 참여 비율)





세 개의 집단은 고립형, 사적 결사체 중심형, 종교 중심 포괄형으로 구분된다. 종교단체 참여가 유형 분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LCA 유형 분류와 다르다. (이기영, 2008; 김석호, 2016)

첫 번째 유형은 고립형이다. 전체 사례수의 절반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단체 참여 비율이 저조하다. 공적 결사체로 분류할 수 있는 주민협회, 시민단체 등은 물론이고 사적 결사체인 여가단체 참여 비율도 10%가 되지 않는다. 친목단체의 경우 참여 비율이 약 12% 정도였다. 다만 종교단체 참여 비율은 약 16% 정도로, 유형 내에서 다른 결사체 참여 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번째 유형은 사적 결사체 중심형으로 친목모임 참여 비율이 약 91%로 매우 높으며 여가모임에도 약 51%가 참여한다. 하지만 주민협회나 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공적 결사체 참여 비율은 다른 결사체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세 유형 중 시민단체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살펴본 종교 중심 포괄형이다. 종교 단체 참여 비율이 약 93%로 매우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주민협회는 약 43%, 봉사단체 약 55%, 친목모임 약 88%, 여가모임 약 49%로 사적, 공적 결사체 전반의 참여 비율도 높다. 유일하게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약 3%로 가장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표6> 결사체 참여 유형 별 특성

	고립형	사적 결사체 중심형	종교 중심 포괄형	최소-최대
성별(여성)	0.58	0.49	0.63	0-1
연령	50.13	47.91	55.70	18-99
결혼 유무	0.52	0.65	0.75	0-1
자녀 유무	0.68	0.73	0.92	0-1
교육 수준	2.45	3.00	2.95	0-5

가구 소득	3.40	4.43	4.35	0-7
이념(보수)	3.07	2.93	2.84	1-5
일반 신뢰	2.35	2.41	2.40	1-4
내적 효능감	3.05	3.17	3.44	1-5
외적 효능감	2.27	2.28	2.31	1-5
종교				
-무종교	0.48	0.49	0.02	0-1
-불교	0.23	0.25	0.16	0-1
-개신교	0.21	0.16	0.52	0-1
-천주교	0.08	0.08	0.29	0-1
-기타	0.01	0.01	0.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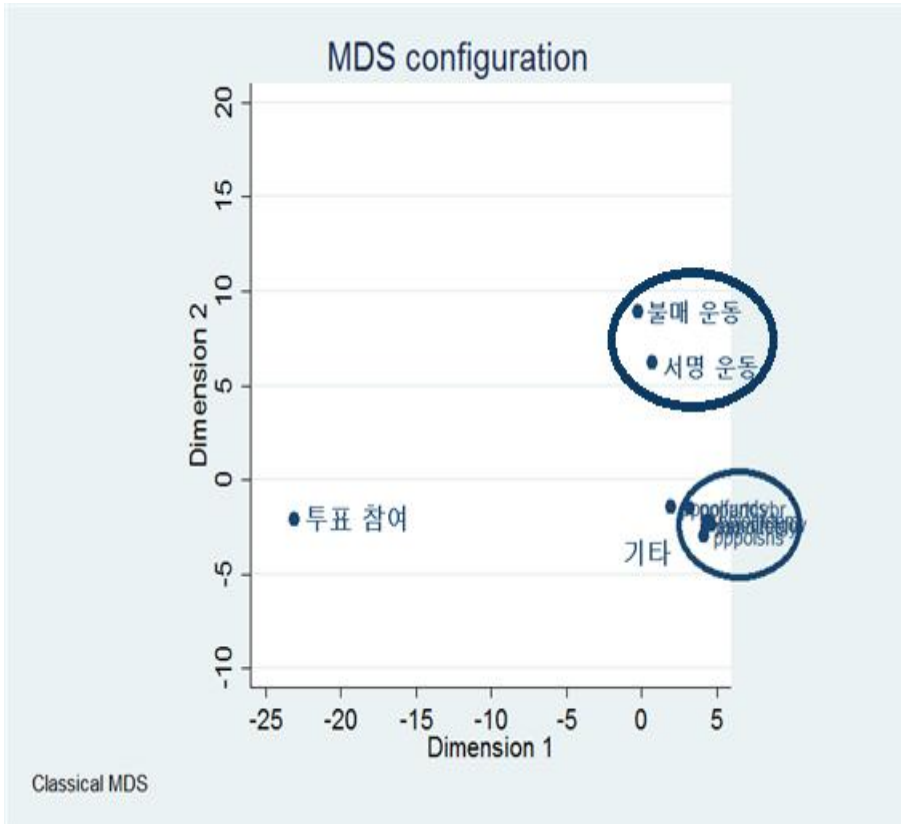
한편 세 가지 유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표6>에서 각 결사체 참여 유형의 변수별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종교 중심 포괄형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 결혼과 자녀 유무의 경우에도 비율이 가장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수준, 가구 소득)의 경우 사적 결사 중심형 보다는 평균값이 낮으나 독립형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특성을 보인다. 정치 심리학적 차원에서도 내적 정치 효능감과 외적 정치 효능감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 종교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응답자 중 개신교인 비율은 21%이지만 종교 중심 포괄형에서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천주교인 비율 역시 전체 응답자에서는 9%였으나 해당 유형에서 29%를 차지한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이 중심이 된 중산층 시민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유형이 종속 변수인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정치 참여 유형 분류를 다차원 척도 분석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3-2. 정치 참여 유형

종속 변수인 정치 참여의 경우 조작적으로 정의한 세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 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은 변수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보여주는 분석 기법이다. 문항에 제시된 정치 참여를 모두 포함시켜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가상적인 유형 분류와 실제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 행위들의 근접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투표 참여와 다른 정치 참여 간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비 선거 정치 참여도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 두 유형으로 잘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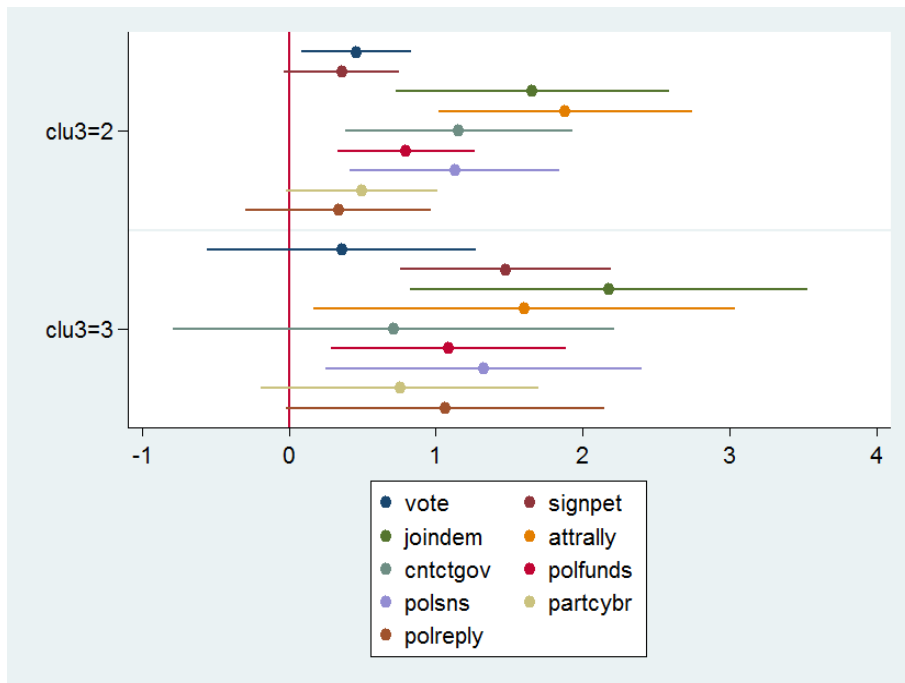
<그림8> 정치 참여의 다차원 척도 분석 (MDS)



만약 비 선거 참여를 두 가지 유형으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을 따로 분석하면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명과 불매를 제외하면 각 정치 참여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1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사체 참여 유형을 독립 변수, 투표 참여와 9 가지 비 선거 정치 참여를 각각 종속 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고, Coefficient Plots을 그려서 합치면 (다른 변수 통제) 다음 <그림9>와 같다. 계수값 신뢰 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즉, 해당 종속 변수들에서는 독립 변수인 결사체 참여 유형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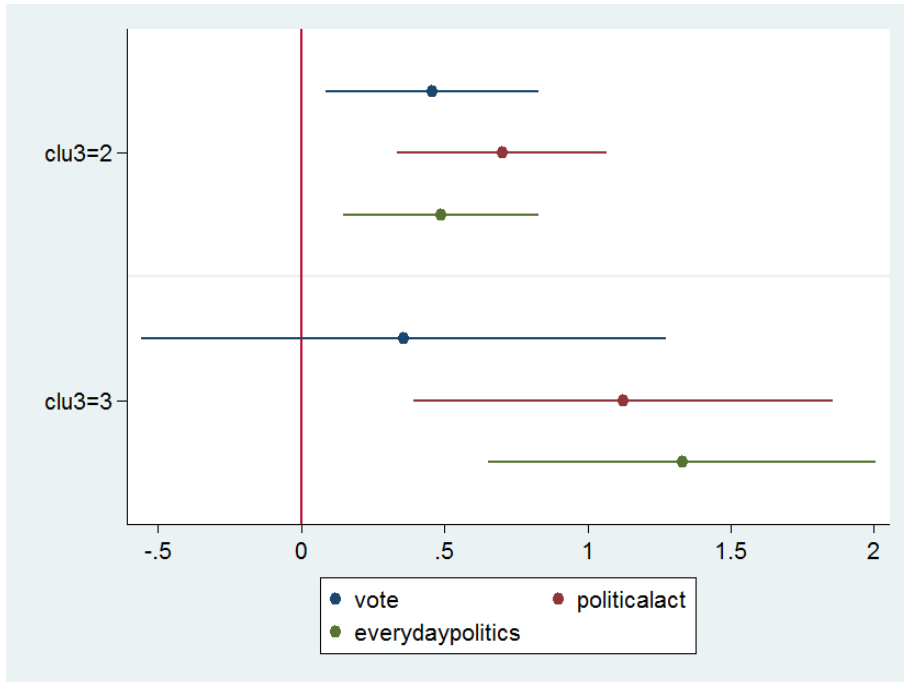
이 때 통제변수는 종교, 종교 의례 참여, 성별,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소득, 교육, 일반 신뢰, 내적 정치 효능감, 외적 정치 효능감, 이념, 지역으로 Coefficient Plots에선 생략했다.

<그림9> 결사체 유형과 정치 참여 전체 Coef. Plots



하지만 MDS 결과를 토대로 비 선거 정치 참여를 두 가지 유형으로 통합했을 경우, 투표 참여와 정치 행동 참여 및 일상적 정치 참여를 종속 변수로 하는 Coefficient Plots을 각각 그려서 합치면 다음 <그림10>과 같다. (통제 변수는 위와 동일하다.) 투표 참여의 경우 원래 세 번째 유형 (변수명 clu3)인 종교 중심 참여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에서는 두 결사체 참여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 선거 정치 참여를 9가지 각각 분석했을 때의 해석상의 어려움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림10> 결사체 유형과 정치 참여 유형 Coef. Plots



다음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앞서 분류한 결사체 참여 유형이 세 가지 정치 참여 유형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4-4.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

4-4-1. 투표 참여

각각의 결사체 참여 유형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의 유형, 종교 의례 참여를 제외한 모델1, 종교의 유형을 통제한 모델2, 종교 의례 참여까지 통제한 모델3으로 구분하였다. 나머지 통제 변수는 동일하다.

<표7> 결사체 참여 유형과 투표 참여

투표 참여 분석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단체 참여 유형 (기준 : 고립형)			
- 사적 결사 중심형	0.39 (0.19) *	0.41 (0.19) *	0.46 (0.19) *
- 종교 중심 포괄형	0.52 (0.49)	0.52 (0.48)	0.36 (0.47)
통제 변수 (종교)			
종교 (기준: 무종교)			
- 불교		-0.02 (0.25)	-0.54 (0.29)
- 개신교		0.20 (0.26)	-0.73 (0.35) *
- 천주교		-0.35 (0.33)	-1.00 (0.37) **
- 기타		-1.50 (0.97)	-2.08 (0.89) *
종교 의례 참여			0.22 (0.06) ***
통제 변수 (그 외)			

결혼 유무	-0.34 (0.30)	-0.37 (0.31)	-0.38 (0.31)
자녀 유무	0.06 (0.37)	0.09 (0.37)	0.13 (0.37)
여성	0.43 (0.19) *	0.42 (0.20) *	0.35 (0.21)
연령	0.06 (0.01) ***	0.06 (0.01) ***	0.06 (0.01) ***
소득 수준	0.05 (0.05)	0.05 (0.05)	0.06 (0.05)
교육 수준	0.32 (0.11) **	0.32 (0.11) **	0.31 (0.11) **
지역 (기준: 서울)			
- 경기	-0.10 (0.30)	-0.09 (0.30)	-0.13 (0.30)
- 강원	0.02 (0.57)	-0.04 (0.58)	-0.20 (0.56)
- 충청	-0.30 (0.38)	-0.29 (0.39)	-0.28 (0.39)
- 경상	-0.71 (0.28) *	-0.69 (0.29) *	-0.74 (0.29) **
- 전라	0.62 (0.39)	0.68 (0.39)	0.79 (0.40) *
- 제주	0.49 (0.99)	0.50 (1.01)	0.68 (1.08)
이념 (보수)	-0.18 (0.10)	-0.18 (0.10)	-0.21 (0.10) *
일반 신뢰	0.08 (0.12)	0.06 (0.12)	0.06 (0.12)
내적 정치 효 능감	0.60 (0.12) ***	0.62 (0.12) ***	0.65 (0.12) ***
외적 정치 효 능감	-0.04 (0.10)	-0.03 (0.10)	-0.03 (0.10)
상수항	-3.97 (0.86) ***	-4.06 (0.86)	-4.24 (0.87)
N	1007	1007	1006
Pseudo R ²	0.1328	0.1378	0.1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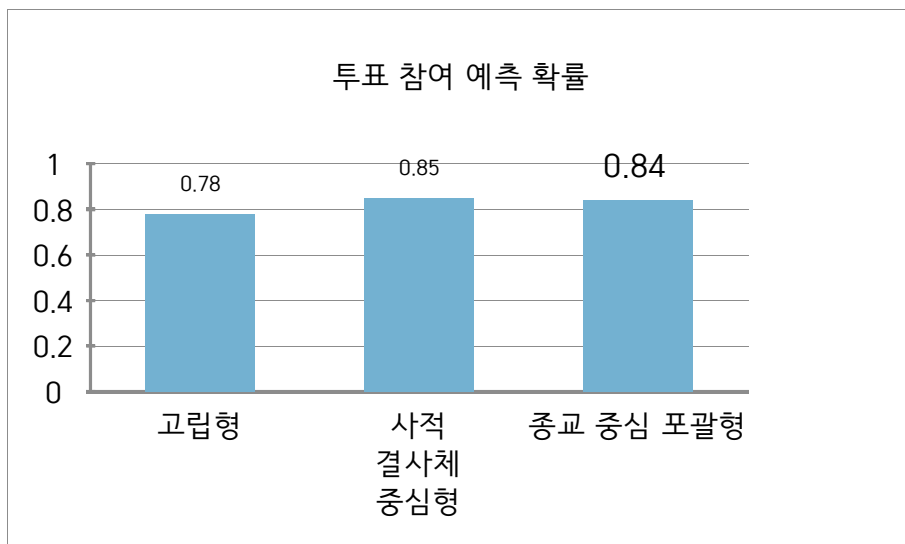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 p<0.1

먼저 통제 변수의 경우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과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인 교육 수준이 유의미했다. 내적 정치 효능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내적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종교 의례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형의 경우 의례 참여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사체 참여 유형은 고립형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 유형 각각의 효과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모델1부터 3까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적 결사체 중심형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참여를 높였고, 종교 중심 포괄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 표를 통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각 유형 별로 예측되는 확률을 구해 보았다.

<그림11> 투표 참여 예측 확률



<표8> 투표 참여 예측 확률

투표 참여	사적 결사체 중심형	종교 중심 포괄형
참여 예측 확률	85%	84%
고립형과의 차이	7%p	6%p
통계적 유의성	$p < 0.05$	유의미하지 않음

고립형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78%로 예측되는데, 사적 결사체 중심형은 85%, 종교 중심 포괄형은 84%로 예측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종교 중심 포괄형의 경우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4-4-2. 정치 행동 참여

정치 행동 참여의 경우에도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종교의 유형, 종교 의례 참여를 제외한 모델1, 종교의 유형을 통제한 모델2, 종교 의례 참여까지 통제한 모델3으로 구분하였다. 나머지 통제 변수는 동일하다.

<표9> 결사체 참여 유형과 정치 행동 참여

정치 행동 참여 분석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단체 참여 유형 (기준 : 독립형)			
- 사적 결사체 중심형	0.66 (0.18) ***	0.68 (0.19) ***	0.70 (0.19) ***
- 종교 중심 포괄형	1.37 (0.36) ***	1.20 (0.37) ***	1.12 (0.37) **
통제 변수 (종교)			
종교			
- 불교		0.13 (0.25)	-0.03 (0.28)
- 개신교		0.36 (0.24)	0.03 (0.33)
- 천주교		0.24 (0.31)	0.00 (0.35)
- 기타		-0.26 (0.94)	-0.52 (0.92)
종교 의례 참여			0.08 (0.05)
통제 변수 (그 외)			
결혼 유무	0.13 (0.28)	0.12 (0.29)	0.12 (0.29)
자녀 유무	-0.06 (0.35)	-0.05 (0.35)	-0.02 (0.35)
여성	0.06 (0.18)	0.03 (0.18)	0.01 (0.18)
연령	-0.02 (0.01) **	-0.02 (0.01) **	-0.03 (0.01) ***
소득 수준	0.03 (0.04)	0.03 (0.04)	0.03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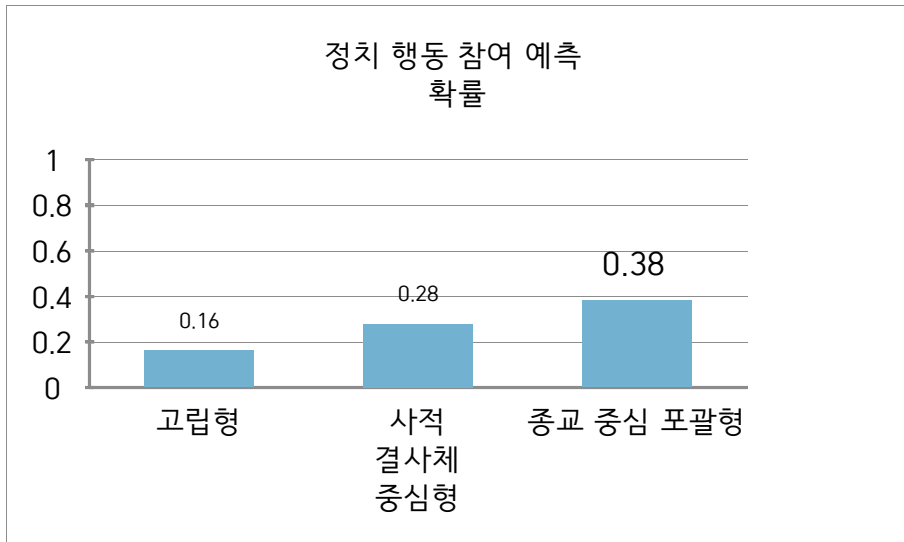
교육 수준	0.15 (0.09)	0.14 (0.09)	0.14 (0.09)
지역 (기준: 서울)			
- 경기	-0.73 (0.25) **	-0.69 (0.25) **	-0.71 (0.25) **
- 강원	-0.80 (0.49)	-0.80 (0.49)	-0.85 (0.49)
- 충청	-0.34 (0.33)	-0.28 (0.33)	-0.26 (0.32)
- 경상	-0.51 (0.25) *	-0.45 (0.26)	-0.46 (0.26)
- 전라	-1.22 (0.37) ***	-1.19 (0.37) ***	-1.19 (0.37) ***
- 제주	-0.20 (0.78)	-0.08 (0.79)	-0.04 (0.79)
이념 (보수)	-0.41 (0.10) ***	-0.42 (0.10) ***	-0.43 (0.10) ***
일반 신뢰	-0.06 (0.12)	-0.06 (0.12)	-0.06 (0.12)
내적 정치 효 능감	0.27 (0.12) *	0.27 (0.12) *	0.28 (0.12) *
외적 정치 효 능감	-0.03 (0.10)	-0.04 (0.10)	-0.04 (0.10)
상수항	-0.06 (0.78)	-0.42 (0.10)	-0.17 (0.79)
N	1007	1007	1006
Pseudo R ²	0.1304	0.1331	0.1358

*** p<0.001 ** p<0.01 * p<0.05 † p<0.1

통제 변수의 경우 연령과 이념, 내적 정치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진보적이며 내적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종교 간 차이는 없었다. 종교 의례 참여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분석 결과 결사체 참여 유형의 효과는 모델1부터 3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세 유형 모두 고립형에 비해 참여를 높이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모델3을 기준으로 사적 결사체 중심형은 p<0.001 수준에서, 종교 중심 포괄형은 p<0.01 수준에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참여를 높였다. 정치 행동 참여에서도 결사체 유형에 따라 예측되는 확률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12> 정치 행동 참여 예측 확률



<표10> 정치 행동 참여 예측 확률

정치 행동 참여	사적 결사체 중심형	종교 중심 포괄형
참여 예측 확률	28%	38%
고립형과의 차이	12%p	22%p
통계적 유의성	p<0.001	p<0.01

참여 예측 확률의 경우 고립형은 정치 행동 참여 확률이 16%로 매우 저조했고, 사적 결사체 중심형은 28%, 종교 중심 포괄형은 가장 높은 38%로 예측되었다.

4-4-3. 일상적 정치 참여

일상적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종교의 유형, 종교 의례 참여를 제외한 모델1, 종교의 유형을 통제한 모델2, 종교 의례 참여까지 통제한 모델3으로 구분하였다. 나머지 통제 변수는 동일하다.

<표11> 결사체 참여 유형과 일상적 정치 참여

일상적 정치 참여 분석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 변수			
단체 참여 유형 (기준 : 독립형)			
- 사적 결사체 중심형	0.49 (0.17) **	0.49 (0.17) **	0.49 (0.17) **
- 종교 중심 포괄형	1.32 (0.32) ***	1.32 (0.34) ***	1.33 (0.34) ***
통제 변수 (종교)			
종교			
- 불교		-0.29 (0.24)	-0.26 (0.27)
- 개신교		-0.16 (0.23)	-0.12 (0.31)
- 천주교		0.17 (0.28)	0.20 (0.32)
- 기타		0.22 (0.91)	0.24 (0.91)
종교 의례 참여			-0.01 (0.05)
통제 변수 (그 외)			
결혼 유무	0.72 (0.26) **	0.72 (0.26) **	0.72 (0.26) **
자녀 유무	-0.35 (0.32)	-0.35 (0.32)	-0.34 (0.32)
여성	0.26 (0.17)	0.28 (0.17)	0.29 (0.17)
연령	-0.02 (0.01) **	-0.02 (0.01) **	-0.02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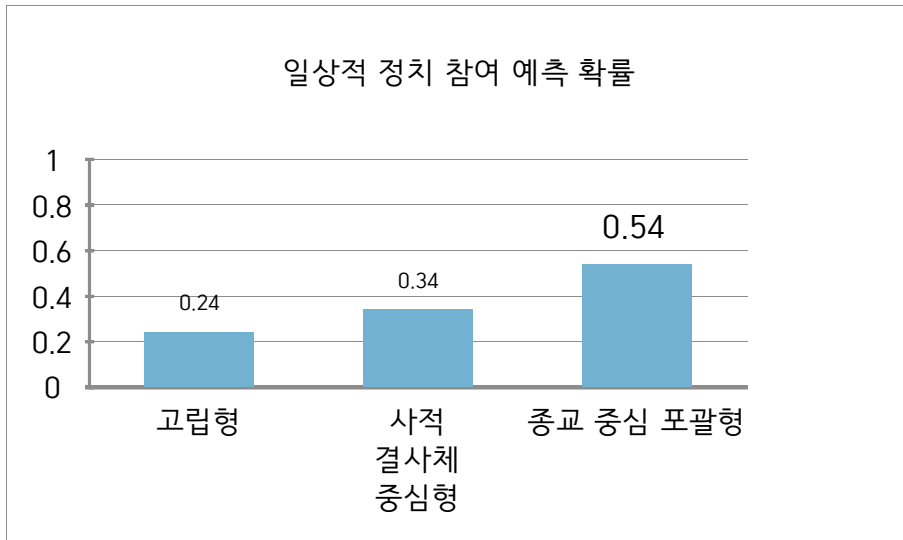
소득 수준	0.10 (0.04) *	0.10 (0.04) *	0.10 (0.04) *
교육 수준	0.21 (0.08) *	0.22 (0.08) *	0.22 (0.08) **
지역 (기준: 서울)			
- 경기	-0.05 (0.24)	-0.06 (0.25)	-0.06 (0.25)
- 강원	0.34 (0.41)	0.40 (0.42)	0.40 (0.42)
- 충청	-0.17 (0.32)	-0.20 (0.32)	-0.20 (0.32)
- 경상	-0.33 (0.25)	-0.30 (0.26)	-0.29 (0.26)
- 전라	-0.10 (0.32)	-0.12 (0.32)	-0.12 (0.32)
- 제주	0.27 (0.68)	0.28 (0.67)	0.28 (0.67)
이념 (보수)	-0.21 (0.10) *	-0.20 (0.10) *	-0.20 (0.10) *
일반 신뢰	-0.01 (0.12)	-0.01 (0.12)	-0.01 (0.12)
내적 정치 효 능감	0.05 (0.12)	0.04 (0.12)	0.04 (0.12)
외적 정치 효 능감	-0.04 (0.10)	-0.04 (0.10)	-0.04 (0.10)
상수항	-0.77 (0.74)	-0.76 (0.74)	-0.79 (0.74)
N	1007	1007	1006
Pseudo R ²	0.1102	0.1131	0.1135

*** p<0.001 ** p<0.01 * p<0.05 † p<0.1

통제 변수의 경우 연령과 함께 결혼 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사람, 결혼한 사람이 일상적 정치 참여에 더 많이 참여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인 소득과 교육 수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이 일상적 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도 유의미했는데 그 정도가 정치 행동 참여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종교 변수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의례 참여, 종교의 유형 모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결사체 참여 유형의 경우, 고립형에 비해 사적 결사체 중심형이 p<0.01 수준에서, 종교 중심 포괄형이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참여를 높였다.

<그림13> 일상적 정치 참여 예측 확률



<표12> 일상적 정치 참여 예측 확률

일상적 정치 참여	사적 결사체 중심형	종교 중심 포괄형
참여 예측 확률	34%	54%
고립형과의 차이	10%p	30%p
통계적 유의성	p<0.01	p<0.001

참여 예측 확률의 경우 고립형은 24%로, 사적 결사체 중심형은 34%로 예측되었다. 종교 중심 포괄형은 54%로 가장 높게 확률이 예측되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종교 중심 포괄형 유형은 투표 참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에서는 고립형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예측 확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일상적 정치 참여에서 고립형과의 확률 차이가 가장 컸다.

5. 결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신뢰와 시민성을 증진시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학교’로 일컬어졌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가?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주목했다. 서구 정치사회학에서 종교는 결사체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본의 보고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인식적이고 조직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종교는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종교와 정치 참여의 관계는 주로 종교 단체의 신도에 대한 지도부의 조직적 동원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종교 단체의 조직 동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개인 단위의 결사체 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였다. 본 연구는 먼저 종교가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결사체 참여 유형을 분류하여 종교 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유형을 발견하고 유형 별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에서도 종교는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 활동의 참여는 결사체 참여와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종교 의례 참여는 결사체 참여의 종류수를 증가시키고, 종교 단체 참여와 종교 의례 참여가 (비선거적) 정치 참여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각각의 결사체를 따로 살펴볼 경우 종교 의례 참여가 봉사단체와 종교단체 참여만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결사체의 종류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 두 종류의 결사체 참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참여하는 결사체 종류수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

족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사체 참여 유형 분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다.

둘째로, 결사체 참여 유형의 잠재 집단 분석 (LCA) 결과 종교 단체 참여자 상당수가 특정 유형으로 묶일 수 있음을 발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적 결사체, 공적 결사체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면서 종교 단체 참여 비율도 절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본 연구는 이를 종교 중심 포괄형으로 이름을 붙였다. 나머지 유형은 고립형, 사적 결사체 중심형으로 명명된다. 물론 모든 종교인이 다른 결사체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 중심 포괄형에 속하는 사례수는 63명(약 7%)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사체 활동에서 가장 폭 넓은 참여를 보여주는 본 유형은 절대 다수가 종교 단체 참석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산층 시민이다.

셋째로, 정치 참여 유형을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투표 참여, 정치 행동 참여, 일상적 정치 참여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비 선거 정치 참여를 합치지 않고 각각을 따로 분석할 경우, 한국인의 정치참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본 연구처럼 정치참여를 재구성해서 분석할 경우 결사체 참여 유형이 정치 참여 유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다.

넷째로, 결사체 참여 유형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고립형을 기준으로 할 때 종교 중심 포괄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참여는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 두 가지였다. 반면 투표 참여에서는 고립형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치 행동 참여와 일상적 정치 참여에서, 종교 중심 포괄형의 예측 확률은 고립형은 물론 사적 결사 중심형에 비해서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결사체 유형과 정치 참여 유형 간 관계에서 종교의 유형 (불교, 개신교, 천주교)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결사체 참여 유형에서 종교 중심 포괄형이 대부분 종교인으로 구성되며,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사체 참여 유형 변수와 종교 유형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기에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통계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해서 신앙과 교리의 중요성을 저평가할 수는 없다. 종교 유형 별 참여 메커니즘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이들의 높은 정치 참여가 갖는 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종교 중심형 포괄형에 속하는 시민들은 고립형에 비해 교육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종교인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활발한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주고, 다시 정치 참여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의 불평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이 참여하는 정치 참여의 의제에도 중산층 종교인의 계층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이 좋은 시민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자료에 제시된 문항의 한계로 시민성과 같은 요인을 측정하지 못했는데, 종교 중심 포괄형 유형이 시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종교 중심 포괄형 유형이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도록 추동하지만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하지만 종교를 중심으로 결사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들이 보다 공익 지향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로 정치에 참여한다면, 참여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들의 존재가 종교단체와 일반 시민사회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시민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배타적인 가치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본연의 이타주의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결사체 참여가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상쇄시켜 참여의 평준화에 기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종교 단체 참여의 경우 연고집단이나 여가모임과 달리 상향 관계 지향적 목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자은·김석호, 2018) 상향 관계 지향 전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결사체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 결사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종교 단체 참여자들은 나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교단체 본연의 특성 역시, 자발적 결사체가 단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추락하지 않고 신뢰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민주주의의 학교로 기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 참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임자은·김석호, 2018) 종교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계층 간의 관계 맺기는 정치 참여 불평등 완화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부자 종교인과 가난한 종교인이 '같은' 종교단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의 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경험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철. 2012. 민주화와 종교. 한신대학교 출판부.
- 강인철. 2013.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한신대학교 출판부.
- 강인철. 2014. “대한민국”의 종교학 -시민종교 연구를 위한 시론. 종교문화연구 22: 73-102.
- 강인철. 2017. 두 개의 대한민국?-시민종교 접근으로 본 전환기의 한국사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1: 132-163.
- 김명배. 2009.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북코리아.
- 김민아. 2013. 사회참여적 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형성에 끼친 영향 : 1987년 민주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김상돈·김승녕. 2012. 소셜 미디어 이용과 시민성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분석: 인터넷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분석. 社會科學論集 43(2): 41-67.
- 김석호. 2016.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시민성”, 이내영 편. 한국인의 정체성. 동아시아연구원.
- 김석호·박바름. 2012. “동원의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선택에 대한 차별적 효과”,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분석. 나남.
- 김영태. 2012.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참여: 19 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3): 45-69.
- 김욱·김영태. 2006.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 대전과 목포지역 젊은이의 가치정향과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9(1): 179-202.
- 김재명. 2009. 세속화론에 대한 지구화론적 관점의 이해. 종교문화연구 12: 147-175.
-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진호. 2016. '웰빙-우파'와 대형교회, 첫 번째. 제3시대 91: 14-17.
- 김철수. 2013. 해방 이후 한국의 종교지형 변화와 특성. 한국학논집 53:

339-378.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조건: 정치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韓國 政治 研究 25(1): 81-110.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 나은경. 2007.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상호작용. 韓國 言論學報 51(4): 385-406.
- 도묘연. 2017.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10(2): 5-41.
- 류석춘 외.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7: 203-26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 박바름. 2012.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정치토론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2004 KGSS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 송재룡·조광덕. 2015. 종교 및 종교성이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宗教研究 75(2): 1-45.
- 송호근. 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 송호근. 2015. 나는 시민인가. 문학동네.
- 송호근. 2016.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형성 - 시민성 결핍과 과잉 '국민'. 지식의 지평 제20호: 1-18.
- 송호근. 2017. 촛불의 시간. 북극성.
- 안종기. 2016. 종교와 정치적 선택: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행태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49-81.
- 엄한진. 2004. "지역의 형성과 종교: 지방자치제 이후 원주의 종교-지역

-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 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엄한진. 2006. “새로운 지역발전론과 종교: 원주 가톨릭의 경험을 중심으로”,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결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기영. 2008. 한국인의 단체참여 유형과 그 효과 :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이숙종·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원규. 2015. 종교사회학의 이해. 나남. (개정2판)
- 이은혜. 2016. 한국의 가족주의와 시민참여: 가정 내 사회적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이재열·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韓國社會學 42(7): 178-214
- 이준복. 2012.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16(3): 331-358.
- 이준웅·김은미·김현석. 2007.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韓國言論學報 51(3): 358-384.
- 임자은·김석호. 2018. 한국사회 공동체 형성의 합리적 기반 : 개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연결망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 정치인 네트워크와 유권자 네트워크. 언론정보연구 48(2): 80-107.
- 장덕진. 2012. 혁명은 트윗된다 -김진숙과 트위터, 그리고 99%의 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29-143.
- 장성호. 2013. 인터넷 공론장으로서 트위터(Twitter)를 통한 정치참여의 유형. 한국동북아논총 69: 291-308.
- 장승진·하상웅. Rally Around the Cross : 종교와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2003-2009. 한국정치학회보 45(5): 297-317.

- 전명수. 2013. 한국 종교와 정치의 관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담론 201(Discourse 201) 16(2): 75-101.
- 전명수. 2015. 좋은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의의. 宗教研究 75(4): 145-174.
- 전명수. 2016. 정치발전과 종교의 공적 역할. 한국학연구 56: 191-218.
- 정병은.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 재경안동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331-358.
- 정상호·조광덕. 2016. 종교 및 종교성이 대학생의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시아연구 19(3): 115-146.
- 정창수·김신열. 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韓國社會學 27: 117-151.
- 진보미. 2017. 한국인의 시민성 유형과 정치참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조대엽. 2014.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현상과 인식 38(4): 131-155.
- 조대엽. 2015. 생활민주주의의 시대. 나남.
- 조정인. 2012. 정치적 아웃사이드러들의 역습?: 비통상적 정치참여채널 활성화가 참여 불평등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2): 39-66.
- 최현종. 2013. 선거의 독립변수로서의 종교적 요인. 종교와 문화 24: 121-147.
- 한내창. 2001. 우리문화에서 I/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韓國社會學 35(6): 193-215.
- 한내창. 2004. 동서양 문명에서 종교성. 宗教研究 36: 173-204.
- 한수진. 2015.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한국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Bellah, Robert N. 1967.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1): 1-21.
- Berger, Peter L. 1967.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Anchor Books.
- Berger, Peter L.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 CO.
- Brady, Henry E., Sidney Verba, and Kay Lehman Schloz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Brody, Richard A. 1978. "The puzzl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America," pp. 287-324 in Anthony King (ed),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sanova, José. 1994.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el, Carol A. 1999. Voluntary associations, churches, and social participation theories of turnout. *Social Science Quarterly* 80(3): 504-517.
- Chambers, Simone, and Jeffrey Kopstein. 2001. Bad civil society. *Political Theory* 29(6): 837-865.
- Cornwell, Benjamin, and Jill Ann Harrison. 2004. Union Members and Voluntary Associations: Membership Overlap as a

- Case of Organizational Embeddedn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862-881.
- Delhey, Jan, Kenneth Newton and Christian Welzel.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Durkheim, Emile. 1995[1912].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Karen E. Fields. New York: Free Press.
- Ha, Shang E. and Seokho Kim and Se Hee Jo. 2013.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34(4): 512-532.
- Harris, Fredrick C. 1994. Something Within: Religion as a Mobilizer of African-American Political Activism. *The Journal of Politics* 56(1): 42-68.
- Jacobs, Lawrence R., and Theda Skocpol. 2005.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Lear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Jones-Correa, Michael A., and David L. Leal. 2001. Political Participation: Does Religion Matter?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4): 751-770.
- Johnstone, Ronald L. 1975. *Religion and Society in Interaction: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Keel, Hee-Sung. 2010. What Does It Mean to Study Korean Religion(s)?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 11-22.
- Kim, Andrew Eungi. 2002.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Life in South Korea: A Sociological Surve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3(4): 291-310.

- Kim, Chongsuh. 2010. The Concept of " Korean Religion" and Religious Stud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 23-41.
- Kim, Seokho. 2008.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Kim, Seokho. 2011.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한국사회학(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3): 125-154
- Kim, Seokho. 2016. Quality of Civil Socie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ISSP Countries. *Development and Society* 45(1): 113-150.
- Kim, Seokho and Jaeun Lim. 2017. The Structure of Civil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nections of Associational Memberships in Korea, Japan and China. working paper.
- Layman, Geoffrey C. 1997. Religion and political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The impact of beliefs, affiliations, and commitment from 1980 to 1994.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1(2): 288-316.
- Levi, Margaret.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 Society* 24(1): 45-55.
- Lewis, Valerie A., Carol Ann MacGregor, and Robert D. Putnam. 2013. Religion, networks, and neighborliness: The impact of religious social networks on civic engagement. *Social Science Research* 42(2): 331-346.
- McAdam, Doug. 1986. Recruitment to High-Risk Activism: The

- Case of Freedom Summ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1): 64-90.
- McAdam, Doug and Ronnelle Paulsen. 1993. Spec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ies and activ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3): 640-667.
-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2005.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citizenship: The case of South Kore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 63-85.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Schuster.
- Putnam, Robert D., and David E. Campbell 2010.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New York: Simon&Schuster.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Longman Publishing Group.
- Skocpol, Theda. 200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Tocqueville, Alexis de. 2003[1835]. *Democracy in America and Two Essays on America*. translated by Gerald Bevan. London: Penguin.
- van Deth, Jan W. 2014. A conceptual map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ta Politica* 49(3): 349-367
- Wald, Kenneth D., and Clyde Wilcox. 2006. Has Political Science Rediscovered the Faith Fact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4): 523-529.
- Weber, Max. 2002[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Peter Baehr and Gordon C. Wells. New York: Penguin Books.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Wuthnow, Robert. 2002. Religious Involvement and Status-Bridging Social Capita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4): 669-684

Yinger, John Milton. 1970.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Abstract

Relig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 effects of types of associational membership

Yongmin Kim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types of associational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It uses survey data from 2016 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It classifies types of associational participation using LCA (Latent Class Analysis). The main theme of this research is analysing the effect of 'religion centered participator' on political participation.

Voluntary association is regarded as an important actor in participatory democracy. Associational membership is positively correlated not only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but also with civic virtue and trust. So we should pay attention to associational membership when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ligious attendanc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ssociational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eople who passionately attend religious ceremoni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ssociation and politics.

Second, there are three types of associational participation : 'the isolated', 'private association centered participator' and 'religion centered participator.' The type 'religion centered participator' is mostly composed of religious believers. It also shows the highest level of participation in almost all kinds of association except civil movement.

Third, there are thre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r classifying them, this research uses MDS (Multidimensional Scaling). They are electoral participation, political activism and life politics.

Fourth, types of associational participation influences differently on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Especially, the type 'religion centered participator' i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electoral participation than 'the isolated.' However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ther two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activism & life politics) than 'the isolated.'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religion centered participator' is much higher than the other associational membership types in political activism and life politics.

Finally, types of religion (Buddhism, Protestantism, Catholic) are not meaningful factors in this research.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mainly due to data. In this study, Because there is lack of variable for explaining civic virtue, I can't consider qualitative aspect of participation on analysing. First, associational membership may reflect socioeconomic status. If the people who are richer and more

educated actively participate in voluntary association and politics, It may be difficult to achieve participatory equality. Second, if the type 'religion centered participator' lacks civic virtues, the high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may be harmful to democracy. Much effort is needed to collect useful survey data including more variable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olitical meaning of religion in Korea.

Key Words : religion, religiosity, voluntary association, associational membership, political participation, LCA (Latent Class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20175